

##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 인류평화 위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야



종령 효 강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불자여  
러분들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  
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500여년 전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무명을 벗기고 고해에서 벗어나도록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처  
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마음의 평  
화를 얻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도 이어져 우리들  
은 연등을 밝히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  
에 나투신 뜻을  
다시 새기며 부  
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  
습니다.

**“연등 밝히며 이웃 돌보는 불자되길”  
부처님 나신 뜻 새기며 은혜에 감사**

가르침에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이 더욱 펼  
쳐져 온 인류가 전쟁과 테러의 위협에  
서 벗어나고 빈곤과 기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불자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  
니다. 침된 보살정신으로 무장하여 안  
으로는 스스로를 같고 닦으며 무상보  
리를 구하고 밖으로는 자비를 베풀어  
모두가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도록 우리 불자들이 앞장 섭시  
다.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 날  
을 맞이하여 연  
등을 밝히며 자

신과 이웃을 돌아보는 불자가 되기를 서원하면서 참  
된 불자로 거듭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충  
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 부처님오신날 봉축사

## 부처님 깨달음의 길따라 정진 수행



통리원장 지 성

시방삼세에 두루하신 법신 부처님께  
귀의 합니다.

못중생들을 위해 깨달음의 문을 열  
여 보이시고 인도하신 부처님 탄신일  
을 맞았습니다. 불자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깨달음을 궁구해 나아가는 수  
행인으로서 부처님 오신날을 경축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고 부처님 법  
을 만난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고통이나 육락에 떨어지지 않고  
수행할 수 있고, 부처님의 정법을 바탕으로 깨달음  
의 길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당체로서의 부처님은 허공계에 편재충만(遍在充滿)해서 따로 구할 바가 없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네 범부중생  
들에게는 2500여  
년 전 역사상 실

재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를 죽는 마음이  
각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깨달음의 길을 몸소  
걸으신 부처님의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태자 시절에 사람이 태어나고  
병들어 죽는 고통을 목도하고 왕자의 길을 버리고 출  
가했습니다. 히말리아 설산에서 6년을 고행하신 후 온  
갖 마군의 행복을 받아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인 무  
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성취하십니다.

그 후 평생을 길 위에서 설법과 교화  
에 매진하시다가 길 위에서 열반에 드  
셨습니다. 부처님 육신은 사라졌으나  
그 가르침은 면면히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도 감로 법문은 항상하  
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나신 길을 되새기며  
우리 교도님들도 더욱 분발하시어 정  
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법등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 따스한 햇살과 싱그러움이 가득한 부처님 오신 이  
즈음 우리 주위에는 갖가지 어두운 현실에 신음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서해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던 우리 꽃다  
운 국군장병들

이 숨져갔고 그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와 가족들 역시 충격과 비통속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업증생  
(同業衆生)이며 서로 서로 인연연관(因緣緣關)되어 살  
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심(大慈大悲心)으로 이런 이웃들을 보듬어 안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날을 경축하오며 교도님들의  
가정에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비 광명이 항  
상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음미니 반메훔.

**“어려운 이웃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 봉축 어울림 마당, 자비나눔 행사 봉행

## 총지종 등, 5천여 불자 장충체육관 운집



▲ 어울림마당에 참가한 총지종 연희단과 교도들.



한편 봉축위원회는 4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 달간을 봉축기간으로 정하  
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1부 행사에는 불교총지종을 비롯한  
14개 단체 600여 명의 연희단과 어린이  
· 청소년 · 청년회의 흥겨운 율동이 펼  
쳐졌다.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  
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고  
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누는 것이야 말  
로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뜻을 기리는 일”이라며 “불교  
가 앞장서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  
자”고 말했다.

2부 ‘소외계층 희망더하기 모금 자비  
나눔’ 행사에서는 모금방송과 함께 ‘아  
름다운 동행’의 활동과 성금기탁 홍보  
영상 관람, 승가원 자비복지단 난타,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의 공연 등이 다  
채롭게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가정  
과 소외계층 긴급생활비, 미혼모 및 청  
소년 쉼터 개설 지원을 위한 즉석 ARS  
모금이 열리기도 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혜경 스님은  
“소외된 이웃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하  
는 부처님 오신날이 되자는 의미에서  
마련한 행사”라며 “아름다운 동행에 불  
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작가 노희경 씨는 발원문을 통해  
“연꽃향기가 시방세계에 널리 퍼져 세  
상의 고통을 없애고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총지종 지성 통리  
원장과 재무부장 시정 정사, 총무부장  
인선 정사,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천태종 사  
회부장 경천 스님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에도 연등을 달아 봉축분위기를 고조  
시킨다. 5월 23일까지 청계천 청계광장  
에서 청계 3가 산일빌딩까지 팔각연등  
800개, 장엄등 35점이 서울 도심을 수  
놓는다.

봉축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 27개 해  
외지사와 해외사찰 160여곳, 아리랑TV  
광고 등을 활용해 해외 홍보활동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네팔,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등 8개국에서 온 신자들이 연  
등행렬에 나서며, 외국인 등 만들기 대  
회도 열린다.

20여명의 외국인이 참가할 예정이다.  
봉축위원회는 또 다음달 말까지  
‘저소득 소외계층 희망더하기’ 나눔 행  
사를 연다. 모금된 돈은 저소득 · 실  
직 · 다문화 가정에 긴급 생계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이를 위해 전국  
사찰에서 108배 모금법회, 자비연꽃 배  
지 달기 운동 등을 벌인다.

종단협은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스  
리랑카 등 남방불교권의 스님들을 초청  
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통등전시회(5  
월 14일 ~ 5월 29일, 서울 봉은사), 연등  
놀이(5월 15일 오후 7시 ~ 9시), 조계사  
앞길(인사동), 외국인 등 만들기 대회(5  
월 16일 오후 2시 ~ 5시, 조계사 앞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부처님오신날의  
뜻을 되새길 예정이다. 청계천과 광화

- 윤우재 기자

## 종조법설

## 내 것 없으니 잊을 걱정 없다

내 것이 없으니 잊어버릴 걱정 없다. 기억(記憶)할 일 없으니 잊을 걱정이 없다. 구(求)하는 것이 없으니 실망(失望)이 없다. 미운 사람이 없으니 수원(憤怨)이 없다.

## 총기39(불기2554)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합니다.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종령 효 강

통리원장 지 성

중앙종의회장 대 원

교 육 원 장 화 령

총무부장 인 선

서울경인 교구장 시 정

서울경인 지회장 김은숙

재무부장 시 정

부산경남 교구장 지 광

부산경남 지회장 신인록

교정부장 수 현

대구경북 교구장 지 공

대구경북 지회장 권오남

사회부장 우 인

충청전라 교구장 법 우

충청전라 지회장 민순분

불교총지종

#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 통리원장 등, 기로원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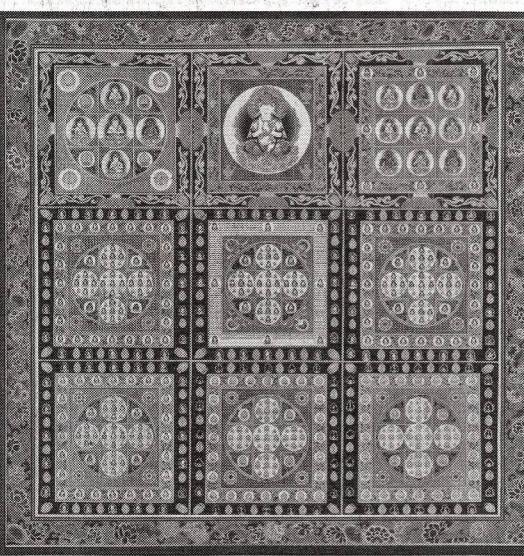


▲ 지성 통리원장 등 집행부가 5월 11일 기로원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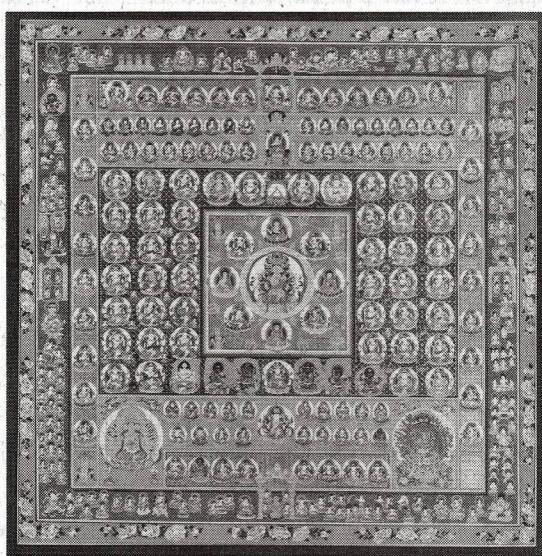
지성 통리원장 등 집행부가 5월 11일 성남·법천사(주교: 시정) 소재 기로원을 방문해 기로원을 전하고 다과

공양을 드렸다. 이번 행사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종단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기로스승들을 방문 위로하고, 경로 효친사상을 함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장화 기로스승은 “요즘 교회 활동이 부진한 면이 없지 않다”며 “새 집행부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성 통리원장은 “총지종이 여기에 오기까지 기로스승님들의 정진 수행과 혼신적 노력이 뒷받침이 된 것”이라며 “종단의 큰어른들께서 늘 건강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금강계 만다라



▲ 태장계 만다라

만다라는 범어(梵語) mandala를 우리 말로 읽은 것이다. 한자로는 曼茶羅, 혹은 曼陀羅 등으로 표기한다. 이 말은 '본질(本質)'을 가진 것, '진수(眞髓)'를 득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만다라는 흔히 한문으로 윤원구족(輪圓具足)으로 의역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부처님의 갖가지 공덕을 그 안에 원만하게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만다라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어 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만다라를 통하여 어떻게 깨달음으로 향해 가야하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다라는 절에서 흔히 보는 행화와도 다르다. 행화는 가운데에 주존이 되는 부처님이나 보살을 모시고 나열하는 형식으로 그려져 있지만 밀교의 만다라는 불, 보살과 명왕, 천신 등을 기하학적 도형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배치하고 있다.

우리 종지종에서 봉안한 만다라는 밀교의 만다라 가운데에서 가장 복잡하고 종합적인 것으로서 밀교사상의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봉안한 만다라의 이름은 태장계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라고 한다. 이것을 밀교의 양부 만다라라고 하는데 이 양부 만다라는 밀교의 정수를 시각화하여 보여 주는 것으로 밀

교의 교리와 수행체계, 그리고 법신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하는 불보살과 그 권속들로 이루어진 법신세계를 상징적이면서 합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고도로 발달한 삼정주의 철학이면서 신비주의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밀교의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한 눈에 보여 주는 것이 이 양부만다라이다.

태장계만다라는 원래의 이름

이 대비태장생만다라(大悲胎藏生曼茶羅)이며 밀교의 대표적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깨달음을 본체로 한다는 만다라는 뜻이다.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金剛頂經)》과 《반아이취경(般若理趣經)》에 의거하여 그려진 것으로 중앙의 성신회를 시작으로 시계방향으로 삼매야회, 미세회, 공양회, 사인회, 일인회, 이취회, 향삼세회, 향삼세삼매야회 등 모두 9회로 나뉘어져 있다. 즉 9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 만다라는 비로자나불을

## 집행부, 서울 경인 임원진 상견례



▲ 집행부, 서울 경인 신구 임원진 상견례.

지성 통리원장 등 집행부와 신정회 서울경인지회 신구 임원진



상견례가 4월 30일 총지사에서 열렸다.

제75회 춘계 강공회 회향  
제75회 춘계 강공회가 원만히 회향됐다.

강공회 회향식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중생을 위한 제생의 세(濟生醫世)의 중대한 사명을 완성하려면 하나님 정진 둘도 정진”이라며 “일심으로 중생제도 위해 매진하자”고 말했다.

지성 통리원장은 “소임을 맡고 첫 강공회를 맞아 내심 두렵기도 했지만 집행부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로 대과없이 회향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강공회에서 얻은 값진 결과들을 각 사원에서 멋지게 회향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역삼동 총지사에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날 오색 봉축등이 내걸렸다.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이 되길 기원해 본다.

## “총지종 양부 만다라, 밀교사상의 총체 담아”

경전인 《대일경(大日經)》에 근거하여 그려진 것이다. 태장계 만다라는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사방의 사불(四佛)과 많은 보살, 명왕(明王), 천(天) 등을 배열하여 비로자나불, 즉, 대일여래(大日如來)의 이(理)의 세계를 나타낸 것이다. 마치 어머니의 모태에 아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비로자나불의 세계 안에 모든 불보살과 명왕, 천 등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중앙의 비로자나부처님을 중심으로 우주가 전개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리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불보살이나 명왕, 천 등을 통하여 어떻게 비로자나불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실천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금강계만다라는 금강과 같이

중심으로 36존의 불보살이 깨달음의 단계를 학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智)의 만다라라고 할 수 있다. 즉, 석가모니부처님의 전신(前身; 부처가 되기 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체의 성취보살이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이라는 밀교의 관법에 의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곧 금강계만다라이다.

금강계만다라는 중앙의 성신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보는 방법을 향하문(向下門)이라고 하며 그 반대, 즉 오른쪽 맨 아래의 향삼세삼매야회로부터 거꾸로 시계반대방향으로 보아가는 것을 향상문(向上門)이라고 한다. 향하문은 중앙의 비로자나부처님의 공덕이 불보살과 명왕 등을 통하여 우리 중생에게 미쳐지는 과정

-화령(중앙교육원장)

\* 그동안 일시 중단되었던 ‘알기쉬운 밀교상식’이 다시 연재됩니다.

##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2010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천사	무명씨	4/13	10,000	단음사	경병순	4/2	10,000	법천사	시 정	4/19	10,000	실지사	이화수	4/20	10,000	해정사	강애란	4/8	20,000	후원회
개천사	윤 찬	4/16	10,000	단음사	경문지	4/2	10,000	법천사	원만원	4/19	10,000	실지사	이숙자	4/28	10,000	해정사	최영례	4/14	10,000	가입안내
개천사	이희권	4/23	10,000	단음사	정효평	4/15	10,000	법천사	박말조	4/19	5,000	자식사	이판도	4/14	20,000	회음사	하향숙	4/16	20,000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관성사	김봉기	4/22	10,000	단음사	법연지	4/22	5,000	벽룡사	양지현	4/22	10,000	정각사	김문수	4/12	10,000	총국사	지 정	4/19	20,000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관성사	황성녀	4/27	10,000	덕화사	법 등	4/7	20,000	벽룡사	양정현	4/22	10,000	정각사	구정희	4/14	20,000	무명씨	4/1	10,000	부처님의 자비와 자비의 덕을 전개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관성사	박현숙	4/30	10,000	덕화사	무명씨	4/28	10,000	삼밀사	원 송	4/2	10,000	정각사	박수빈	4/22	10,000	강순란	4/5	5,000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관음사	신막심	4/12	10,000	만보사	민준분	4/12	250,000	삼밀사	인법계	4/2	10,000	총지사	최순전	4/6	20,000	임자자	4/5	10,000		
교산수원원	권성수	4/14	10,000	만보사	조덕남	4/28	10,000	삼밀사	원 송	4/30	10,000	총지사	록 경	4/19	10,000	이규성	4/5	4,000		
기로원	대 관	4/19	10,000	만보사	정덕순	4/29	10,000	삼밀사	인법계	4/30	10,000	총지사	선도원	4/19	10,000	임동수	4/6	30,000		
기로원	대자행	4/19	10,000	밀인사	이재호	4/9	20,000	선립사	황귀석	4/16	10,000	총지사	법수원	4/19	10,000	이숙남	4/14	30,000		
기로원	밀공정	4/19	10,000	밀인사	이재갑	4/9	20,000	선립사	심지장	4/16	10,000	총지사	최해선	4/20	20,000	박주열	4/19	10,000		
기로원	법장화	4/19	10,000	밀인사	원 당	4/16	10,000	성화사	우대비	4/20	50,000	총지사	이수영	4/27	20,000	박호열	4/19	10,000		
기로원	법지원	4/19	10,000	밀인사	묘심해	4/16	10,000	수인사	장영택	4/1	50,000	총지사	이수영	4/27	20,000	안호정	4/27	20,000		
기로원	불멸심	4/19	10,000	밀인사	신정희	4/19	318,000	수인사	김봉기	4/28	10,000	총지사	이혜성	4/27	20,000	이혜원	4/30	5,000		
기로원	사홍화	4/19	10,000	밀인사	정정희	4/29	5,000	시법사	진여행	4/12	10,000	총지사	홍연수	4/27	20,000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돛기에 사용됩니다.				
기로원	상지화	4/19	10,000	백월사	한완규	4/13	5,000	실보사	송희준	4/2	10,000	총지사	이종구	4/30	120,086	혜정사	강보구	4/8	20,000	
기로원	수증원	4/19	10,000	백월사	이갑진	4/26	10,000	실지사	주영채	4/2	5,000	총지사	최순전	4/30	20,000	혜정사	강보구	4/8	20,000	
기로원	총지화	4/19	10,000	법천사	김정숙	4/2	5,000	실지사	송우섭	4/5	5,000	총지사	최순전	4/30	20,000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 가입안내

부처님의 자비와 자비의 덕을 전개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역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풍경소리

부모

화가 날 때

화가 나서  
한 번 치밥으려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고대승 (재가수행자)



부처님이 제자와 산책을 하다가 말씀하셨다.  
"고요한 밤의 달과 저 별빛이 아름답지 않느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달과 별빛 아래서  
부처님과 걷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같이 걷는 것이 행복이라 말했느냐?  
너의 눈으로 저 달과 별빛을 보게 한 것은  
부모님이니라.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심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다."

-김원각(시인)



가지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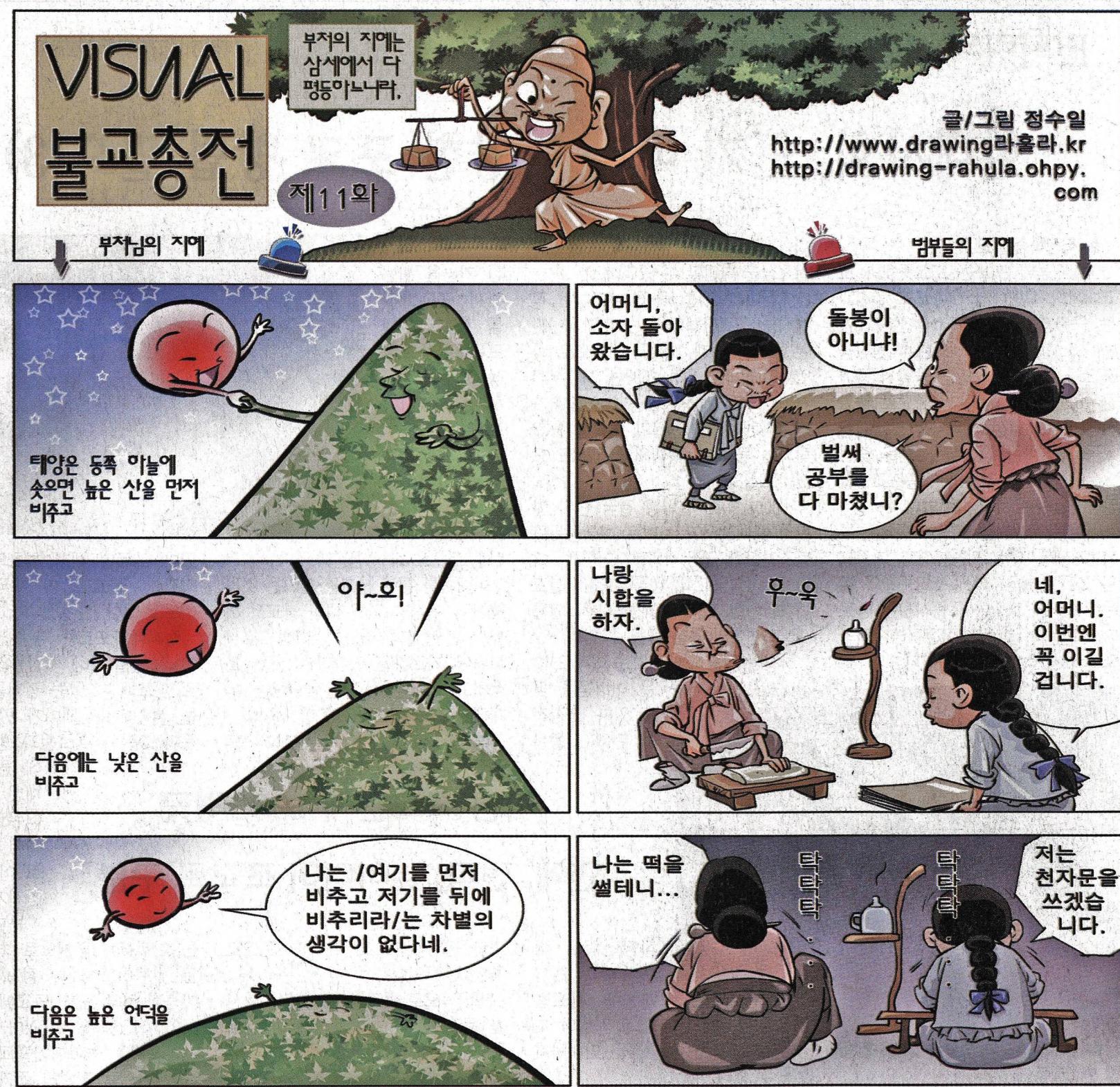
겨울 언저리에 숲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숲이 너무 울창해  
져서 햇볕이 숲 바닥까지 골고루 들지 않습니다.

그리면 키 작고 어린 나무들은 햇볕을 받지  
못해 죽고 맙니다.

제때에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나이테도  
蘼고 옹이도 잘 생깁니다.

나무 기둥에 큰 구멍이 생기고 속이 썩고  
바람에 쓰러지는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사람 사는 일도 그와 같아서 아무렇게나 자  
란 욕망의 가지들을 제때에 쳐주지 않으면 인  
생을 송두리째 잊기도 합니다.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



이달의 명상

번뇌를 없애는 세 가지 공부



수행하는 데에 세 가지 정해진 도리가 있  
다.

마음을 거두는 계율,  
계로 말미암아 생기는 선정,

선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지혜,  
이것이 번뇌를 없애는 세 가지 공부다.

-수능엄경 首楞嚴經



내용참조: "불교총전" 교법편 23p

## 꿈과 희망을 품고 실천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훈  
창동  
조동  
협애  
경애  
교목  
보리수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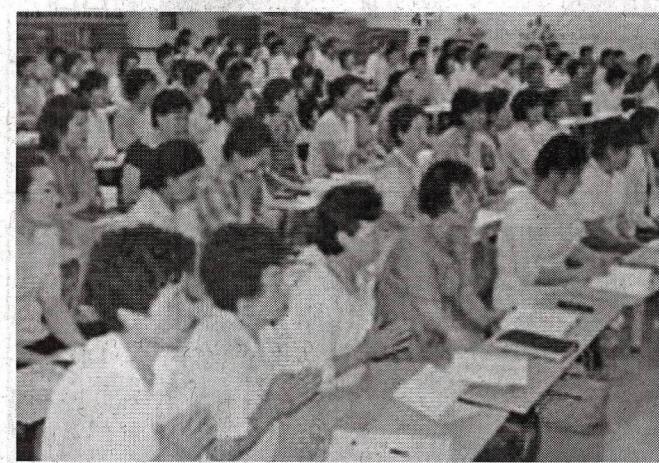
## 만다라의 복지세상 ⑳

## 현대사회, 근기 따라 다양한 포교 방법 필요(3)

## ▶ 직장직능별 포교

직장직능별 포교는 포교주체나 포교대상의 측면에서 계층포교 일반과는 구분되는 일종의 소집단 포교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직장직능포교는 같은 직장 또는 동일 업종에 근무하는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불교신행단체를 결성해 독자적으로 신행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사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준의 계층포교방법과는 또 다른 차별성이 있다.

이같은 직장직능 포교의 주체는 특정한 직장 혹은 직능단체의 기존회원이고 그 대상 역시 포교주체와 같은 직장 혹은 직능에 종사하는 동료다. 그러므로 개별 직장직능단체의 포교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 ▶ 공무원불자회 중요성 부각, 업종별 연합활동도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은 직장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직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모든 직장과 직능마다 불교신행단체가 결성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포교에 다른지 않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직장직능 포교활동은 일종의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신행활동의 조직화라는 효과를 지니며, 바로 그러한 점에서 기존 불자의 신행활동을 강화하거나 유지하고 나아가 불자의 비불자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한국불교에서는 직장직능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0년대 초와 1996년도에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고, 2000년과 2002년에는 전국 직장직능 불교단체 임원 수련법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직장직능 포교의 현주소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지방자치체 이후 공무원불자

회의 급증현상 등 직장직능 포교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1990년 300곳 미만이던 직장직능 포교단체의 수는 불과 6년만인 2002년 현재 1000곳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부터 개별신도단체들의 업종별 연합회가 결성되거나 지역단위의 연합회가 조직되는 등 조직 확대의 움직임도 드러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설립된 전국 단위 연합회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대한민국경찰불교회, 한국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 한국전력인불자회, 언론사불자연합회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직능 포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장직능 단체 활동은 미디어를 통해 전파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 안된다.

미디어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포교효과를 거두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 포교가 단순히 불교에 대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전파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 안된다.

미디어를 통해 불교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 특정 사안에 대한 불교적 해석이나 불교의 태도를 밝힘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여론을 조성하고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포교의 유형은 인쇄매체포



있다. 1995년 세계 최초의 불교텔레비전인 '불교TV'가 개국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파매체포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찰을 떠나 사람들의 일상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파 지원의 회소성과 방송국 설립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등의 이유로 개별사찰에서 포교방법으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뉴미디어포교

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미디어를 포교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불교계의 뉴미디어포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에서는 최근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선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의 모바일 기술 이용은 아직 진입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신문 등 교계신문을 구독하고 불교방송, 불교TV 등을 시청취하는 것은 포교매체의 인지도를 높이고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에 흥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법시(法施)가 된다. 또한 이들 포교매체들이 불교에 유리한 혹은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포교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직접 포교매체를 만들어 포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포교활동이 되는 것이다.

-지정(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 \* 현대사회에 비약적 발전 / 각종 포교매체 활용 중요

전파매체포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전파매체를 이용하는 포교다.

1990년 라디오 '불교방송'이 서울에 개국하면서 전파매체포교의 첫장을 열었으며, 이후 부산 등 8개도시의 불교방송국이 법음을 흥포하고

## 총지동의보감

## 냉 대하

취를 동반하게 됩니다.

• 한의학적으로 보는 냉 대하의 원인

1) 비허생습(脾虛生濕): 평소 소화기능이 약하고 손발이 차가운 경우. 건비제습(健脾除濕)하여 비의 기능을 높여 습을 제거해 줍니다.

2) 신허불고(腎虛不固): 선천적으로 체력이 약하고 분만이나 유산경험이 많은 경우. 신(腎)과 자궁 및 생식기능을 높여 주고 대하를 말려 줍니다.

3) 습열하주(濕熱下注):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하거나 유산, 수술 후 회복이 부진할 경우. 청열이습(淸熱利濕)하여 열을 내려 주고 동시에 습을 제거해 줍니다.

냉 대하는 생리 현상에 따라 자연히 분비되기도 하지만 몸에 이상이 생겨 병적으로 분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생식기로부터 나오는 분비물을 보통 대하라고 합니다.

냉 대하 치료방법 중에는 내복약

외에 좌약이나 좌훈법 등의 외치료법이 겸용되고 있습니다.

## 직장 포교단체 1000여곳

## 인쇄, 전파, 뉴미디어 포교로 구분

직장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법

사 스님을 구하기 어렵고 사찰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대다수 직장직능 포교활동은 참여회원의 부족과 더불어 단순한 신행프로그램에 의지해 운영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장직능단체와 사찰을 연계함으로써 지도법사 스님의 도움을 받고 신행프로그램의 지원 등 종단 차원의 지원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신행활동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행, 교육, 조직 관리 등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개발해서 현실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업종별 연합체나 지역별 연합체를 통해 직장직능단체들 사이의 정보교류 등 상호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 ▶ 미디어포교

미디어포교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포교활동을 말한다.

교와 전파매체포교, 뉴미디어포교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전파 혹은 확산을 목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한 경우는 개신교가 타 종교에 비해 더욱 적극적이다. 현재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나 케이블TV, 라디오 등 전파매체, 인터넷사이트 등 뉴미디어매체 등. 모든 면에서 불교보다는 개신교 매체가 활동이 많다.

한국불교에서 인쇄매체포교의 역사는 1910년 창간된 최초의 불교잡지 <원종(圓宗)>에 그 연원을 둘 수 있다.

또한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 1960년 창간돼 신문을 통한 포교의 장을 개척했으며, 불교신문은 교계 최초로 2003년부터 주2회 발행하고 있다.

## \* 현대사회에 비약적 발전 / 각종 포교매체 활용 중요

전파매체포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전파매체를 이용하는 포교다.

1990년 라디오 '불교방송'이 서울에 개국하면서 전파매체포교의 첫장을 열었으며, 이후 부산 등 8개도시의 불교방송국이 법음을 흥포하고

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등의 이유로 개별사찰에서 포교방법으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뉴미디어포교

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미디어를 포교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불교계의 뉴미디어포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에서는 최근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선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의 모바일 기술 이용은 아직 진입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신문 등 교계신문을 구독하고 불교방송, 불교TV 등을 시청취하는 것은 포교매체의 인지도를 높이고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에 흥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법시(法施)가 된다. 또한 이들 포교매체들이 불교에 유리한 혹은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포교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직접 포교매체를 만들어 포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포교활동이 되는 것이다.

-지정(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 세균 감염,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발병

## 생감초, 익모초 효과

• 가정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냉 대하 처치법

- 생감초 120g과 쑥 100g를 달여서 그 물로 하루에 1~2회 세척해 준다.

- 사상자 40g, 고삼, 황백 10g, 전련자 5g, 고백반 15g를 달여서 그 물로 세척해주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익모초 잎을 말려서 보관하였다가 물 1500cc에 익모초 50g를 넣고 약 1시간 동안 달여서 이 물로 하루 2번 세척해 준다.

## 죽비소리

## 모든 화는 입에서 난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세상에서 화를 일으킴은 모두 입에서 나온 것이니 항상 입을 불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거센 불은 세상의 재물만 태울 뿐이지만, 악한 말은 일곱 성현의 재물을 모두 태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의 화는 입에서 나오는 까닭에 입은 몸을 부수는 도끼요 몸을 멀리는 칠날이로다."

〈보은경 報恩經〉

## 기사제보

총지종보에서는 전국 각사원의 소식과 행사, 기타 미담과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보전화 : 02)552-1080~2 / bota32@hanmail.net

##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 관성사

주교 : 정사 인선  
전수 정계월  
☎ (02)736-0950

## 밀인사

주교 : 정사 원당  
전수 묵심해  
☎ (02)762-1412

## 법천사

주교 : 정사 시정  
전수 원만원  
☎ (031)751-8685

## 벽룡사

주교 : 정사 법일  
전수 자행정  
☎ (02)889-0211

## 시법사

주교 : 전수 환수원  
☎ (032)522-7684

## 실지사

주교 : 전수 연등원  
☎ (02)983-1492

## 정심사

주교 : 전수 진일심  
☎ (02)433-0374

## 지인사

주교 : 정사 지성  
전수 승효제  
☎ (032)528-2742

## 총지사

주교 : 전수 선도원  
정사 화령  
정사 법록  
정사 경전  
전수 법수현  
☎ (02)552-1080

##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서울 · 경인교구

## 지상설법



법 공

기로스승

## ♣ 정시(定施)

매일 정시할 정시 금액은 자신의 경제형편, 즉 자신의 낸 평균 수지(收入, 支出)를 감안하여 액수를 정하되 당년의 목표와 서원에

부처님께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회사법(喜捨法)법과 관련된 것을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총지증의 회사법에는 그 종류와 성질에 따라 법시(法施)와 재시(財施), 절령회사(節糧喜捨)가 있고, 시기에 따라 행하는 회사로 정시(定施)와 차시(差施)가 있으며, 회사하는 방식에 따라 십일회사(十一喜捨)와 십이회사(十二喜捨)가 있고 대상과 용도에 따라 단시(檀施), 반포법시(頒布法施), 보온시(報恩施)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시와 차시에 관한 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절맞게 본인이 적절히 조정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필자의 사견입니다만) 공덕이란 성심(誠心)을 다 하는데서 이루어 지는 것인 바 자신의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한 액면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매년 해가 바뀌면 재조정하되 특별히 생활상의 변동이 없다면 비록 소폭일 망정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간다면 복업의 증장(增長)이 한층 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시는 매일 빼지 말고 하되 가급적 아침정송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차시(差施)

차시법은 위의 정시와는 또 다른 성격의 회

예전에 자계는 자기 자신을 비롯해 가족, 친지, 동료에 이르기까지 일신상에 일어나는 각종 질병과 불의 재난들을 비롯해 크게는 이웃과 사회 국가에 발생되는 천재지변이나 대소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또는 어떤 우환, 질병, 위험 등이 예상되거나 조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차시하고 서원해 주면

단시행은 비로갈아 삼밀단시 관련있어 어느하나 부족하면 물심양면 완전공덕 이뤄지지 않느니라. 세상사람 수단으로 재물수임 하지마는 삼밀행자 정시해야 인무진에 수입된다. 종조법설

## 정시, 형편에 따라 적절히 차시, 예방이나 증익케 해줘

사법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이란 것이 거의 매일 별 변동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바탕으로 살아가지만 때로 예상 밖의 크고 작은 일들이 무시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나 혹은 미리 예정된 큰일이 있을 때 그 일에 상응한 회사로 예방이나 증익케 하는 대응기약(對應生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일이 예방 또는 속히 제멸(除滅)되기도 하며 한편 보시공덕과 자비공덕을 아울러 지게 되는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종조님의 정시 계송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발을 갈아 씨를 심고 비로하면 수확 많다.  
삼밀수행 종자같고

## ◇ 수행자의 생활규범

첫째,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받아쓰지 말라. 밭 갈고 씨 뿌리는 일에서 먹고 입기까지 소와 사람의 수고는 물론, 벌레들이 죽고 상한 것은 한량없을 것이다. 남을 수고롭게 하여 내 몸을 이용하는 것도 옳지 못한데, 하물며 남의 생명을 죽여 내가 살려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사짓는 사람들도 늘 험벗고 굶주리는 고통이 있고 길쌈하는 아낙네도 몸 가릴 옷이 없는데, 나는 항상 두 손을 놀려 두면서 어찌 춥고 배고픔을 싫어하랴.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은 사실 빚만 더 하는 것인지도 도에는 손해되는 것이다. 해진 옷과 나물밥은 은혜를 줄이고 음 덕을 쓰는다. 금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 물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풀뿌리와 나무열매로 주린 배를 달래고 송락과 풀잎으로 몸을 가리네 허공을 나는 학과 흰구름으로 벗을 삼아 높은 산 깊은 골에서 남은 세월 보내리.

둘째, 내것을 아끼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삼악도의 고통을 가져오는 데는 탐욕이 으뜸이고, 여섯 가지 바라밀다는 보시가 제일이다. 아끼고 탐내는 것은 선한 길을 막고 자비로 보시함은 나쁜 길을 방비한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빌거든 아무리 구차하더라도 인색하지 마라. 올 때도 빙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빙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나. 내 재물도 아끼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남의 것에 마음을 두랴. 아무 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생활에 지은 업만 이 몸을 따를 것이다. 시흘 끊은 마음은 천 년의 보배요, 백년 탄생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다.

어찌하여 괴로운 삼악도가 생겼는가 오랜 세월 익혀온 애육 퇴이다 부처님의 가사 바리 이대로 살 만한데 무엇 하려 쓰고 모아 무명 기르나.

셋째,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가벼이 말라.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않으면 신란한 마음이 가라앉아 선정을 이루고,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을 풀이켜 혀를 풀어 이를 것이다. 진실한 본체는 말을 떠난 것이고, 진리는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이 없다. 입은 화의 문이니 반드시 엄하게 지켜야 하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가벼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자주 나는 새는 그물에 걸리기 쉽고, 가벼이 날뛰는 짐승은 화살에 맞을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육 년을 설산에 앉아 움직이지 않으셨고 달마스님은 소림굴에서 구 년을 말이 없었다. 후세에 참선하는 이가 어찌 이 일을 본받지 않을 것인가.

몸과 마음 선정에 들어 동하지 않고 토굴 속에 홀로 앉아 오가지 마라 잠자하고 고요하여 아무 일 없이 내 마음은 부처님께 귀의하리라.

넷째, 좋은 벗은 친하고 나쁜 이웃은 멀리하라. 새가 쉴 때에는 숲을 가려 앉듯이 사람도 배우려면 그 스승을 잘

택해야 한다. 좋은 숲을 찾으면 편히 쉴 수 있고 흘렀던 스승을 만나면 학문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좋은 벗은 부모처럼 섭기고 나쁜 이웃은 원수처럼 멀리해야 한다. 확은 까마귀와 벗할 생각이 있는데 봄새인들 어찌 뺨새와 짹할 마음이 있겠는가. 소나무 숲에서 자라는 흰 천 길이라도 올라가지만 잔디 속에 선 나무는 석자를 면할 수 없다. 어리석은 소인배는 그때마다 멀리하고, 뜻이 크고 높은 사람은 항상 가까이하라. 가고 오고 어느 때나 선지식 모셔 마음속의 가시덤불 베어 버리라

도 뒤는 이 여기 와서 갈 바를 모르네 이 속에서 비수점 빼어 들면 구름이란 간데없고 달빛 밝으리.

여섯째, 잘난 듯이 빼기거나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 어진 행동을 닦는 데는 겹양이 근본이고, 벗을 시키는 데는 공경과 믿음이 유품이 된다. 나니 너니 하고 교만이 높아지면 삼악도의 고해가 더욱 깊어진다. 밖으로 나타난 위의는 존귀한 듯하지만 안은 텅 비어 썩은 배와 같다. 벼슬이 높을수록 겸손히 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나니 남이다 하는 집착이 없어지는 곳에 도는

도 큰 손님을 대한 듯이 하고,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한결같이 해서 안과 밖을 달리하지 말아라. 마음이 깨끗하면 선신(善神)이 수호하고, 여색을 생각하면 천신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선신이 수호하면 힘난한 곳에서도 편안하고, 천신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마음이 평등하면 가지고 버릴 것이 없으니, 가지고 버릴 것이 없다면 생다가 어디 있겠는가.

여덟째,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칭찬하고 헐뜯는 말을 들더라도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잘한 일 없이 칭찬을 받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허물이 있어 시비를 듣는 것은 기쁜 일이다. 기뻐하면 잘못을 고치게 되고, 부끄러워하면 도는 데 채찍질이 될 것이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마침내는 그 허물을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남을 해치는 말을 들으면 부모를 헐뜯는 말과 같이 여겨야 한다. 세상은 오늘 남의 허물을 말하지만 내일은 다시 내 허물을 말할 것이다. 모든 일에 다 허망한 것인데, 비방과 칭찬에 어찌 걱정하고 기뻐할 것인가. 종일토록 잘잘못을 시비하다가 밤이 되면 흐리멍텅 잠에 빠진다. 이같은 출가는 빛만 늘어서 삼계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

아홉째, 대중과 함께 살 때에 마음을 평등하게 가져라. 마음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분별이 없다면 어찌 이 몸에

괴롭고 즐거운 성쇠(盛衰)가 있으랴. 평등한 성품에는 나와 남이 없고, 큰 거울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다. 삼악도에 드나드는 것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요, 육도(六道)에 오르내리는 것은 친하고 성긴 업으로 이루어진다. 마음이 평등하면 가지고 버릴 것이 없으니, 가지고 버릴 것이 없다면 생다가 어디 있겠는가.

위 없는 보리도를 성취하려면 언제나 평등심을 굳게 가지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차별 있으면 도는 더욱 멀어지고 업만 깊으리.

그대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눈먼 거북이 나무 구멍을 만난 것처럼 아주 어려운 일이다. 한생생이 얼마나 된다고 뒤지 않고 계으름만 피우느냐.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불법 만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금생에 놓쳐 버리면 만 겁을 지내도 다시 만나기는 힘들다. 이 계법(戒法)을 지키고 부지런히 닦아 물려나지 말고 속히 정각(正覺)을 이루어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대 혼자만 생사의 바다에서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건지라는 것이다. 왜 나하면 그대가 끝없는 옛적부터 금생에 이르도록 생사에 오락가락할 때 번번히 부모를 의지했을 것이니, 그 끝 없는 세월이 부모 되었던 이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와 같이 생각하면 육도 중생이 그대의 부모 아닌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운 자경문 野雲 自敬文〉

## 진리의 여울

그리하여 앞길이 활짝 트이면 걸음마다 그 자리가 뚫린 관문이어야.

다섯째, 삼경(三更)이 아니면 잠자지 말라. 끝없이 오랜 세월을 두고 수도를 방해하는 것은 즐음보다 더한 것이다. 하루 종일 어느 때나 맑은 정신으로 의심을 일으켜 흐리지 말고, 앉거나 서거나 가만히 마음을 살펴보아라. 한생생을 헛되이 보낸다면 두고두고 한이 될 것이다. 덧없는 세월은 찰나와 같으나 나날이 놀랍고 두려우며 목숨은 잠깐이라 한때라도 보증할 수 없다.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했다면 어찌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는가.

졸음 뱀이 구름 끼니 마음달 흐려

저절로 이루어지며,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온갖 복이 저절로 돌아온다.

교만한 티끌 속에 지혜 묻히고 나다 너나 하는 산에 번뇌 자라니 잘난 체 안 배우고 늙어진 뒤에 병들어 신음하니 한탄뿐이네.

일곱째, 재물이나 여색(女色)은 바른 생각으로 대하라. 몸을 해치는 것은 여색보다 더한 것이다. 알고 도를 잊게 하는 것은 재물에 미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하여 재물과 여색을 엄금하신 것이다. '여인을 보거든 독사와 호랑이처럼 여기고, 금이나 옥을 대하거든 나무나 돌같이 보라.' 비록 어두운 방에 홀로 있더라도

##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 만 보사

주교: 정사 승 원

전수 묘원화

☎ (042)255-7919

## 백 월 사

기로스승: 사홍화

주교: 정사 법 우

전수 인지심

☎ (042)527-5470

## 법 황 사

주교: 전수 혜안정

☎ (062)676-0744

## 혜 정 사

주교: 정사 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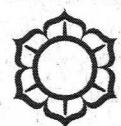
전수 혜원정

☎ (043)256-3813

## 홍 국 사

주교: 정사 지정

☎ (063)224-4358



충정 전라 교구

○ 세상사는 이야기

## 옛날 재봉틀

요즈음 우리 '여성사 전시관'에서 는 새로운 기획전을 하기 위해 유물을 교체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는 1950년대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쓰던 생활용품이나 책 등, 그 당시의 여성들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전시했었다.

다음 전시는 '서울로 올라간 순이'라는 주제로 1960년대 여성들의 일과 직업 등에 관한 것과 생활 모습을 전시하고 있다.

지난 전시를 중에 유난히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아주 낡고 불편한 재봉틀이다.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생활 필수품이었던 재봉틀이 1950년대 유물전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니 세월의 흐름과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이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요즈음은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잘 따라 가지 못하는 나는 때때로 심한 어지러움을 느낀다.

재봉틀 앞에서 갖가지 상상  
사라져 가는 것들에 아쉬움

난 가끔 유물로 전시된 재봉틀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 본다. 이 재봉틀은 누가 쓰던 것일까? 바느질을 아주 잘 하는 어머니일까, 아니면 할머니일까? 과거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손바느질로 가족들의 옷을 일일이 만들어 입혔다. 이때 할머니들은 여러 가지 힘든 노동으로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이로 인해 사회참여는 꿈도 꿀 수가 없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지금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축복 받은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재봉틀은 우리들의 할머니, 어머니들에게는 경이로움의 대상이었다. 너무 귀해서 감히 가질 염두도 내지 못했다. 유물전에 전시 된 재봉틀은 1952년 일본에서 제작 된 것이다. 당시 6.25 전쟁 중이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제작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다.

이 곳에 전시된 이 재봉틀을 썼던 실제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재봉틀로 그는 무엇을 만들었을까? 예쁘고 멋진 옷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입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한편으로 삶

-박묘정

는 웃이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젠 훈수품으로 재봉틀을 장만하는 신부는 없을 것이다. 재봉틀이 집에 있는 정도 드물 것이다. 학가족화 되고 탈가족화 되어 많은 것이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재봉틀은 이제 전시관에 유물로만 존재하는 날이 온 것이다.

여성사 전시관에 관람 하려 온 어린이들도 유물전에 전시 된 재봉틀을 처음 본 어린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전시 설명을 듣고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다. 때로는 알고 있는 어린이도 한 두 명은 있다.

재봉틀이 또 하나의 유물로만 존재하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사라져 가는 것이 아쉬운 것은 왜 일까? 우리 주위에서 멸종되어 자취조차 찾을 수 없는 여러 동식물들을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내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일까? 다음엔 어떤 새로운 것이 유물전의 자리를 차지하고 관람객을 맞이 할지 궁금하다.

-박묘정

불교설화 &lt;43&gt;

## 관세음보살님의 중매(上)

-총선동 응원

이룬다네.”

덕삼은 이 말을 듣고 다시 물었다.

“그렇지만 돌부처가 무슨 신통이 있어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습니까?”

“그것은 모르는 말일세. 돌부처라도 그냥 바위가 아니고, 부처를 새겨 모신 바위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름을 부르고, 지성으로 마음을 모아 빌면, 부처의 신령이 천리 만리라도 걸림없이 오셔서 정성을 받고는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일세. 그러기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정성이 부족하고 믿는 마음이 부족하면 그런 사람에게 그저 돌 바위만 보이지만, 마음이 참되고 정성이 지극하면 모든 것이 모두 부처이고, 듣는 것이 모두 불경소리인자라 무정한 둘도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변신해 나타나는 것일세. 그러므로 소원을 이루고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돌부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정성과 신심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일세”

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도 가난뱅이가 이러는 것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윤덕삼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무집을 지고 오갈때마다 그와 같이 하였다. 이렇게 백일을 하고 나니, 비록 돌부처라고는 하지만 어머니 마냥 친해져 보기만해도 다정함을 느꼈다. 이제는 부끄럼없이 쳐다보고 놓고 하고 어리광을 부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만하면 자기 소원도 들어줄 만도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생활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모두가 허사인듯 애속한 마음도 가끔 들었으나 자기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자기의 소원을 들어 주리라 믿었다. 그런 저럭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되었다. 그 날도 나무를 성안에 팔고 돌아오는 길에 윤덕삼은 해수관음에게 들렸다. 그런데 마침 비가 쏟아져 나갈 수가 없었다. 덕삼은 문도 없는 관음각에 흘로 앉아 있다가 심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여 '우물꼬'를 커다랗게 그려놓고 관세음보살님께 꾼누를 두는 내기를 하자고 말했다.

“관세음보살님, 이제 저와 같이 내기 꾼누를 들풀시다. 저는 이길 자신이 있으니, 만일 제가 이기면 관세음보살님이 그 댁가로 저의 소원을 들어 주셔야 합니다”

덕삼은 꾼누를 두기 시작했다. 우물꼬란 첫 수에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덕삼은 조약돌 두개를 주어다가 하나는 제 것이라 하고, 하나는 관세음보살님 것이라 땅을 정해 놓고, 혼자 천진스럽게 두었다.

“그럼 제가 먼저 두겠습니다”

첫 수에 관세음보살님을 이겨 버렸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우러러 보면서 기원드렸다.

“관세음보살님! 분명히 보셨지요? 꾼누는 분명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니 내일이라도 속히 저의 소원을 꼭 성취시켜 주셔야 합니다”

덕삼은 이렇게 말을 하고 비가 그치자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꿈에 거룩하게 생긴 늙은 부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해수관음을 모시고 있는 옥천암에서 온 보살이다. 너의 정성이 하도 가득하여 너에게 도움이 될 말을 일러 주려 왔다. 너는 내일 첫 새벽 밖이을 때에 나무집을 지고 떠나서 밤이 새기 전에 자하문 밖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리하여 문이 열리면, 첫번째로 나오는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라. ‘남녀가 유별한데 먼저 말하기는 미안합니다. 어디로 가시는 누구이신지는 모르지만 가시는 곳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안내하여 줄테니 저를 따라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너의 집으로 인도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꿈 속일망정 덕삼은 하도 좋아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며 깨어 보니 분명한 꿈이었다.

(다음호 계속)



▲ 옥천암 관세음보살

“참으로 그럴까요?”

“그렇고 말고. 이절에 다니는 신자가 수백명인데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세상에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갖은 고생을 해가며 이 험한 산골짜기에 올라와 정성을 드리겠는가? 생각을 해 보게. 그러기에 여자들은 마음이 간질해서 철저히 믿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기가 쉽지만 자네 같은 총각은 남자라 마음이 엇갈리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빌어도 건성으로 빌 것이니 어려울 것일세. 그럼 난 이만 가네”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다. 온갖 고생을 거듭하고 쪼들릴대로 쪼들린 윤총각은 귀가 번쩍 트이는 것 같았다. 그 다음날부터 그는 이 곳을 지날 때에는 반드시 길가에 나무집을 버티어 놓고 건너가서 해수관음에게 수십 번씩 절을 하고 마음속으로 축원하였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어서 제가 장가를 들어 자손을 보고, 부자가 되어서 나무장사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예배만론 시원치가 않아 점심밥으로 먹을 도시락을 나무집에서 꺼내어 가져다가 올리고 다시 절을 하였다. 도시락이라 하여도 보리밥 아니면 조밥이요 게다가 된장 냉어리가 끼어 있어 퀴퀴

##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 건화사

주교: 정사 덕광  
전수 보현  
☎ (054)761-2466

## 개천사

주교: 정사 우인  
전수 보명심  
☎ (053)425-7910

## 국광사

주교: 정사 안성  
전수 유가해  
☎ (054)772-8776

## 단음사

주교: 전수 지현  
☎ (054)333-0526

## 선립사

기로스승 보원  
주교: 전수 심지장  
☎ (054)261-0310

## 수계사

주교: 전수 안주화  
☎ (054)745-5207

## 수인사

주교: 정사 지공  
전수 지희심  
☎ (054)247-7613

## 승천사

기로스승 원봉  
기로스승 지선행  
☎ (054)746-7434

## 제석사

주교: 전수 행원심  
☎ (053)743-9812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구·경북교구  
대구·경북교구



대구 경북 교구

수행의 길에서

# 부부는 팔천생 인연을 쌓아야

자인행 (운천사)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이런 저런 불공과 종단행사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원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시간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노릇은 하고 살아야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다잡고 겨우 시간을 내어 친구를 만났다.

우리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강가에서 서로 가족들의 안부와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어질 때쯤 친구는 내게 이혼했다면서 어두운 얼굴을 애써 감추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혼한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는데 물어보는 것은 친구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헤어져 돌아왔다.

요즘은 이혼이 다반사처럼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 가정의 기둥이 되는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하면 그 가정

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5 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기 가족과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요즘의 세태를 보면 너무나 쉽게 가정 지키기를 포기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최근 우리나라 이혼율이 50%이며 이는 서양의 선진국보다 높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또 한 해에 결혼한 부부와 그해에 이혼한 부부의 비율이 50%라는 수치를 본 것 같은데 이는 아마도 잘못된 것이라 생각된다. 2009년 법원 행정처는 우리나라 이혼율은 대략 10%정도라고 발표했다. 그래도 10쌍 중 1쌍은 이혼한다는 말이다. 종단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아동 중에도 부모가 이혼해서 한 부모나

할머니와 생활하는 아동들이 제법 있다고 들었다. 이는 이혼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다반사처럼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혼가정이 많은 만큼 이혼사유도 여러 가지로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 두 사람이 내린 이혼의 이유가 가정을 깨뜨려야 할 만큼 정말로 심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지... 결혼은 나보다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로맨틱, 성적욕구, 충족, 돈 등은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통해 충족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현신짝 버리듯 상대를 내팽개친다. 이처럼 요즈음 결혼을 진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결혼 전에

마음의 각오도 하지 않는다. 가정을 수단으로 사회적 성공이나 출세를 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불교에서는 오백생 선업을 쌓아야 길에서 웃기 한번 스치는 인연으로 만난다고 한다. 또 일천생 인연을 쌓으면 같은 나라의 동족으로 태어나고, 이천생 인연은 하루를 동행하고, 삼천생 인연은 하루를 같이 보내고, 사천생 인연은 한 고향에 태어나며, 오천생 인연은 한 마을에서 이웃사촌으로 살게 되며, 육천생 인연은 하룻밤 동침을 하는 남녀로 만나며, 철천생 인연은 한 집에 살고, 팔천생 인연을 쌓아야 부부로 만난다고 한다.

팔천생이란 긴 세월을 서로 인연을 엮어서 어렵고 힘들게 만나 부부가 되었는데 이혼을 선택한 친구의 결정이 정말 많이 아쉽다.

수리들의 이야기

## 아침 산책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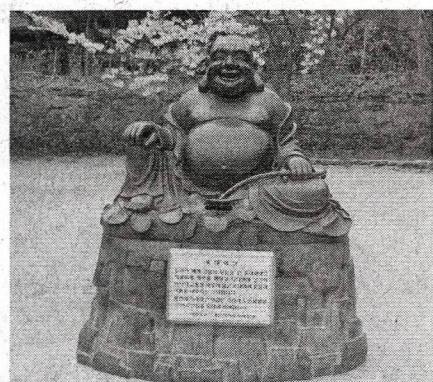
아침 일찍 자동차 수리를 맡기고 걷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참을 걸어서 집에 왔다.

오랜만에 마셔보는 아침공기도 좋고 개울을 징검다리도 너무 좋다. 돌다리를 지날때면 늘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가 생각난다.

어느새 철쭉이 자기 높을 다하고 고개를 멀구고 있는 모습이 우리네 인생을 보는 것도 같다.

그동안 차만 몰고 다녔는데 혼자 여유롭게 아침 산책하는 기분이 참 좋다.

언덕을 넘어 오는데 토끼풀이 가득했다. 왜 크로바만 보면 행운을 찾고 싶은지, 오늘도 어김없이 발걸음을 멈추고 네 잎을 찾았다. 그런데 네 잎이 왜 이리 많은 거야? 어



쩌다 힘들게 찾아야 반갑고 귀한데 너무 많으니 식상했다. 열 개를 뜯어서 들고 집에 와서 책갈피에 넣었다.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평계로 아침 공기도 잊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느껴보고 싶다.

-최해선(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  
blog.daum.net/hsc6234)

## 생활상식

화장수는 약산성인 것을 쓰고 목욕도 날마다 하여 땀을 내서 염분을 배출시켜야 한다. 목욕 후에는 분을 발라준다. 디한증(多汗症)인 사람은 소금기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차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것이 좋다.

▶ 지퍼가 있는 옷은 지퍼를 채우고 세탁한다. 스커트와 바지, 아동용 반바지 등 지퍼가 달려 있는 옷은 지퍼를 채우고 세탁한다. 지퍼를 열어둔 채로 세탁하면 세탁조에 상처를 떨 뿐만 아니라 지퍼가 손상되기 쉽기 때문이다. 옷을 빨고 헹구는 사이 금속 지퍼의 이가 나빠지는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지퍼에 초를 칠하면 잘 듣는다. 이 밖에도 옷에 붙어 있는 금속 장식은 세탁조를 긁히 하므로 손수건으로 써서 세탁한다.

▶ 블라인드 청소는 면 장갑을 사용 블라인드를 청소할 때에는 면 장갑이 편리하다. 면 장갑을 양손에 끼고 물과 세제를 묻혀서 꽉 찬 후에 걸레용도로 사용한다. 면 장갑은 손가락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서 블라인드 손질과 좁은 공간을 청소할 때 아주 편리하다. 먼저 고무 장갑을 끼고 그 위에 면 장갑을 끼면 세제가 묻어도 손이 상할 걱정이 없다. 걸레 등을 들고 블라인더를 닦으면 블라인더 살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잘 안닦이고, 손을 다칠 위험도 있다. 그러나 면 장갑을 끼면 손을 다칠 위험은 물론 청소 자체가 쉬워지고, 작업도 빨리 끝낼 수 있다.

## 위없는 행복

질서가 있어 혼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존경과 겸손과 민족과 감사와 때론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인내하는 것, 온순한 것, 수행자를 만나는 것, 어리석은 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어진 이와 함께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는 것, 처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부처님께선 위없는 행복은 이렇게 평범하고 순리적인 삶 속에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윤우채 기자

## 이달의 추천도서

## 붓다와의 위대한 하루

고수유 저 | 무한



붓다와의 만남을 감동적으로 그린 소설 오로지 교수 가 되기 위해 한평생을 받친 흥진오, 하지만 지도 교수의 비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면 교수가 되는 꿈을 버려야 한다. 강사 자리에서까지 훈겨난 그 그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한다.

"흥진우 씨, 당신을 뵙고 싶습니다. 학교 앞 스타벅스에서 1시 반에 뵙겠습니다."

발신자는 붓다. 그렇다. 우리에게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그, 2,500년 전 삶의 문제를 풀어서 성인의 반열에 당당히 오른 붓다. 21세기 현대라는 시공간에 붓다가 다시 태어난 것일까. 이 책은 붓다와의 만남을 주제로 한 소설이다.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을

소설 속에 적절히 녹아내면서도 서사의 긴장감을 놓지 않으며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어낸다.

## 사카무니 붓다

마성 저 | 대숲비람



초기 성전에 묘사된 역사적 붓다에 대한 국내 최초의 학술적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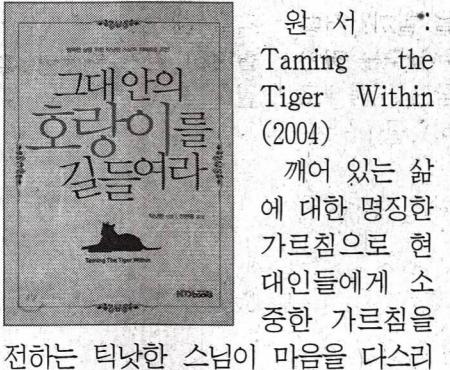
불교는 부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이 믿는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부처의 가르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초기 경전에 묘사된 부처의 말과 삶의 모습이 그 원형을 가장 잘 간직했다고 봐야 한다. 이 책은 붓다를 신학적 전설적 존재로만 신앙해 왔던 불교도들에게 실존했던 인간 붓다의 생애 전모를 초기 성전에 근거하여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고도의 인내심과 긴장감으로 방대한 불전 자료를 하나하나 검증하

여 역사적 붓다의 삶을 치열하게 추적한다. 그러는 한편 깊이 있게 섭렵한 붓다의 생애를 다른 동서양의 저술과 논문 등 여러 연구서들을 바탕으로 역사적 붓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치밀하게 분석했다. 인류의 스승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붓다를 학술적으로 접근한 책으로, 독자들이 역사적 붓다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를 전해 줄 것이다.

## 고대 암의 호랑이를 길들여라

틱낫한 저/진현종 역 | 케이디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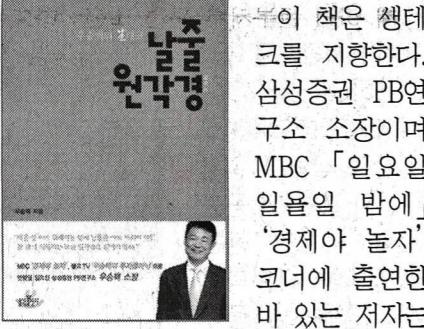


전하는 틱낫한 스님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전한다. 저자가 지은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에서 정선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책을 통해 그는 우리가 주체하기 힘든 화를 호랑이에 비유하고, 마음 속의 '호랑이'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화를 무시하거나 무조건 참는 것은 화를 푸는 것이 아니며, 화를 풀려면 먼저 화의 씨앗을 알아차리고 나서 잘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해서 화를 해소하고 스스로 수그러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가 두려움의 원인으로 지혜를 통해 그 본질을 파악하면 곧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걸림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 우승택의 生테크 날줄 월각경

우승택 저 | 불광출판사



원서 Taming the Tiger Within (2004) 깨어 있는 삶에 대한 명징한 가르침으로 현대인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는 틱낫한 스님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전한다. 저자가 지은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에서 정선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책을 접하며 미움공부를 통한 빈곤퇴치법을 소개한다.

실제로 예로부터 '원각경'은 부자되

▶ 지퍼가 있는 옷은 지퍼를 채우고 세탁한다. 스커트와 바지, 아동용 반바지 등 지퍼가 달려 있는 옷은 지퍼를 채우고 세탁한다. 지퍼를 열어둔 채로 세탁하면 세탁조에 상처를 떨 뿐만 아니라 지퍼가 손상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가 두려움의 원인으로 지혜를 통해 그 본질을 파악하면 곧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걸림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 블라인드 청소는 면 장갑을 사용 블라인드를 청소할 때에는 면 장갑이 편리하다. 면 장갑을 양손에 끼고 물과 세제를 묻혀서 꽉 찬 후에 걸레용도로 사용한다. 면 장갑은 손가락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서 블라인드 손질과 좁은 공간을 청소할 때 아주 편리하다. 먼저 고무 장갑을 끼고 그 위에 면 장갑을 끼면 세제가 묻어도 손이 상할 걱정이 없다. 걸레 등을 들고 블라인더를 닦으면 블라인더 살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잘 안닦이고, 손을 다칠 위험도 있다. 그러나 면 장갑을 끼면 손을 다칠 위험은 물론 청소 자체가 쉬워지고, 작업도 빨리 끝낼 수 있다.

▶ 염분 과잉은 피부를 거칠게 한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체내에 염분이 많다. 땀은 피부를 거칠게 할 뿐만 아니라 화장이 잘 안 받는 원인도 된다. 화장이 잘 안 받는 것을 방지 하려면 피부에 화장수만을 쓰도록 한다.

##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 정각사

주교: 정각 대원

전수 정인화

(051)552-7901

## 관음사

주교: 전수 정원심

(051)896-1578

## 단향사

주교: 정사 경원

(055)644-5375

## 덕화사

주교: 정사 법등

전수 인덕심

(051)332-8903

## 밀행사

주교: 전수 금강륜

(055)354-3387

## 법성사

주교: 전수 묵홍

(051)468-7164

## 삼밀사

주교: 정사 원송

전수 인법계

(051)416-9835

## 성화사

주교: 정사 지광

전수 수십정

(051)254-5134

## 실보사

기로스승: 해정

주교: 전수 정법계

(052)244-7760

## 운천사

주교: 정사 도현

전수 자인행

(055)223-2021

## 일상사

기로스승: 수행월

(055)352-8132

## 자석사

주교: 전수 법상인

(051)752-1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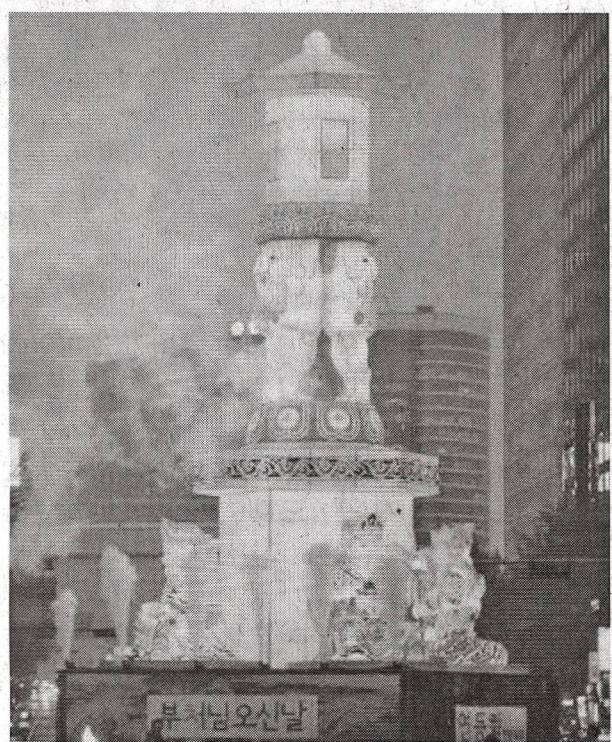
## 화음사

주교: 정사 수현

전수 자심관

(055)755-4697

# 서울시청광장 ‘화합의 등’ 점등식 법주사 쌍사자 석등 모형화



▲ 5월 3일 시청앞 광장 쌍사자 석등

불기2455년, 봉축등이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세상’을 발원하며 서울광장에서 점등됐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봉축위)는 5월 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주사 쌍사자 석등을 형상화한 대형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특히 천안한 희생자의 극락왕 생을 기원하는 한편, 용산참사故 김남훈 경사 아버지 김권찬씨, 외국인노동자 바하두르씨, 나눔의 집 강일출 할머니, 승가원 김가영 어린이 등 사회 각 계층 구성원과 주한인도대사관 라자세카르 공사와 중국, 브라질, 이탈리아 등 외교 관계자와 참석해 ‘화합의 등’의 의미를 더했다.

자승 스님은 기원문에서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하며 계층과 이념, 지역 갈등의 장벽을 넘어 진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함께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민족의 대결과 갈등이 심화되지 않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자 모두가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점등을 시작으로 쌍사자 석등은 5월 21일까지 서울광장을 밝힌다. 석등은 전통 한지로 제작돼 높이 17m(좌대 2m) 크기로 균형미와 예술성이 도드라지게 제작됐다. 등의 하단부에도 전통 등으로 만들어진 사천왕등이 호위하고 있다. 봉축위 관계자는 “불교에서 사자는 용맹과 지혜, 그리고 수행의 정진력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두 마리의 사자가 함께 어우러져 용맹과 지혜로 우주를 포옹하고 함께 소통하여 밝은 세상을 함께 열어가자는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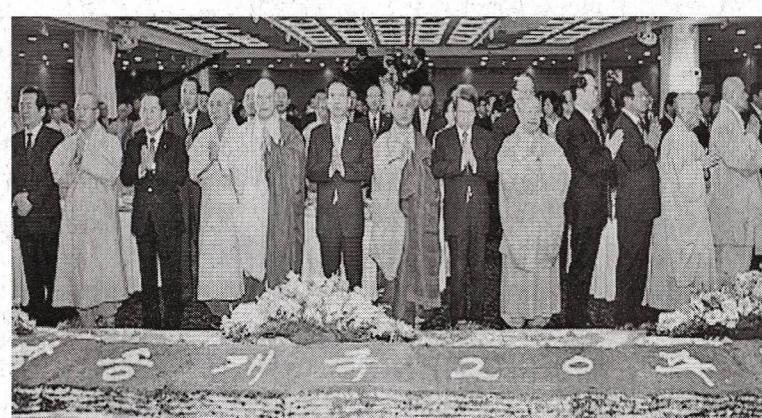
또 “석등은 진리의 빛을, 쌍사자는 화합을, 사천왕은 악을 물리치는 수호신장으로 진리와 사회를 지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진리를 전해 화합의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연등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장 점등식과 함께 서울 종로와 청계천 등 서울시 전역에는 5만여 개의 가로연등이 설치됐다.

가로연등에는 천안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표어가 게시됐다.

# 불교방송, 개국 20주년 기념 리셉션 열려

## 500여 종교, 정관계 인사 참석



▲ 불교방송 개국 20주년 법회

BBS 불교방송이 5월 1일, 개국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봉행했다. 4월 3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 기념 리셉션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정운찬 국무총리, 김형오 국회의장 등 500여명의 종교계, 정관계 인사가 참석했다.

부처님 법음을 전파해 종생의 보살화, 사회의 정토화를 추구하고자 1990년 5월 1일 개국한 불교방송은, 본사인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광주, 대구, 청주, 춘천, 울산 등 지역 방송국과 포항과 안동, 청원에 중계소를 세우면서 전국 인구의 63.7%가 부처님 법음을 접할 수 있게 했다. 또 BBS는 지상파 라디오방송을 넘어 영상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IPTV인 KT QOOKtv, SK브로드밴드 Btv, LG myLGtv를 통해 24시간 영상을 내보내고 있으며, 인쇄매체인 시사주간지 「판관뉴스」까지 아우르는 불교종합미디어로 성장하였다.

## “봉은사 관련 이동관 수석이 사면 제의”

### 김영국 前 조계종특보 청화대 외압설 재차 밝혀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안

상수 원내대표의 프리자호텔 회

동 내용을 알려준 김영국 前 조계종 특보가 청와대 외압설을 재차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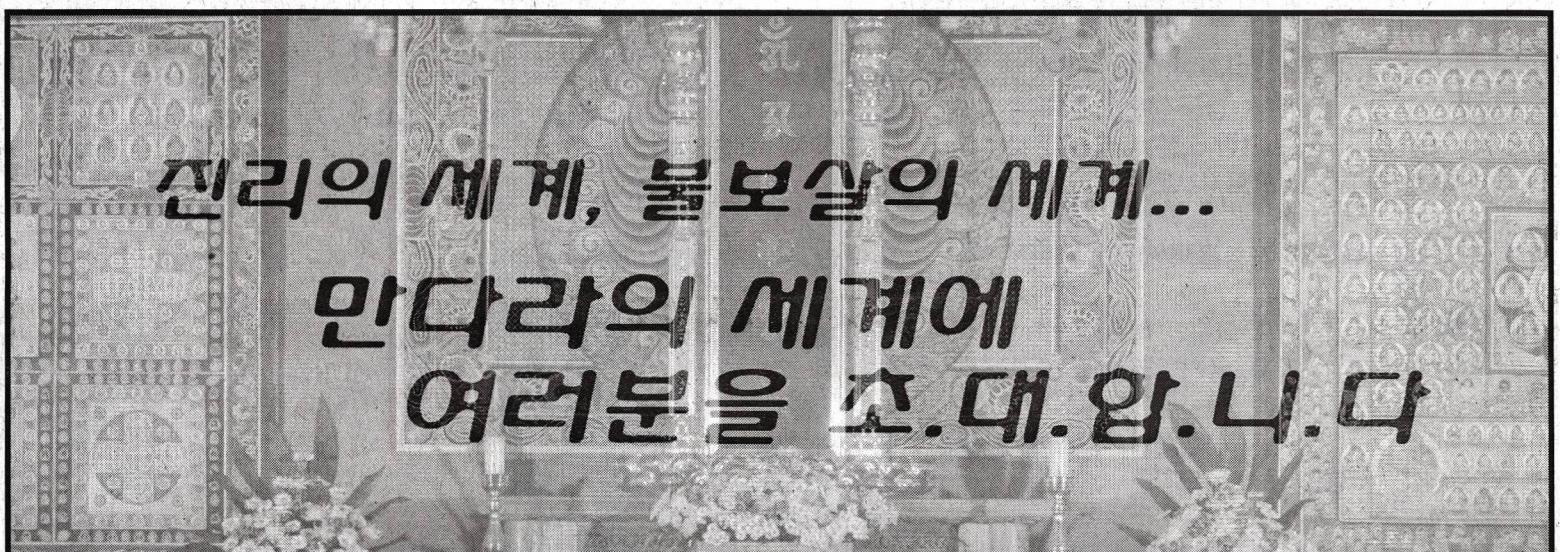
김영국 前 특보는 5월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동관 홍보수석이 명진 스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 前 특보는 조사 후 한겨레 신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자회견 전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부터 기자회견을 하자 않는 대가로 사면복권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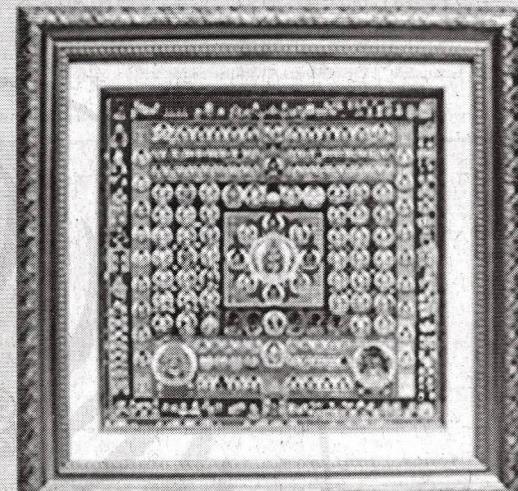
또, 기자회견 전날인 3월 22일

저녁 모임에서 대통령직속기구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직원 A씨(前 청와대 행정관)가 “기자회견을 취소하면 잠적 비용을 대겠다”고 말한 사실도 밝혔다.

이동관 수석이 “김영국 씨와 전화통화를 한 일이 없다”고 밝혀온 데 대해 김영국 前 특보는 “이 수석과 짧은 시간이나마 직접 통화를 했고 문제의 발언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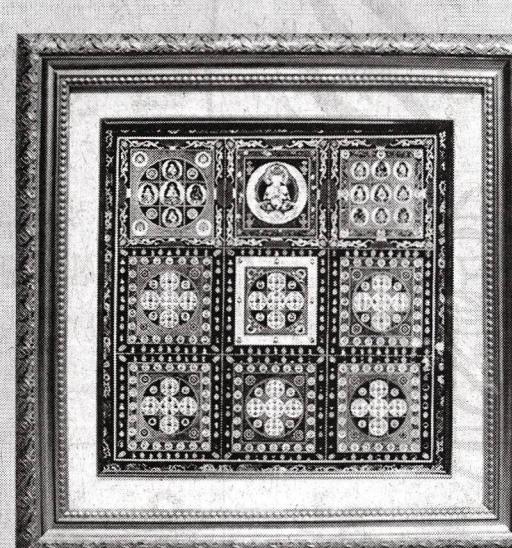


일체 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 도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태장계 만다라 \*

태장계 만다라는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비아인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안에서 인간의 불영을 성장시켜 나가는 일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입니다. 태장계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염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신등 모두 414존이 모여져 있습니다.



### \* 금강계 만다라 \*

금강계 만다라는 ‘금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 입니다. 금강계만다라는 중앙의 성인회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연경천불등 모두 1,461존이 모여져 있습니다.

### ※ 구성표

#### ♣ 사이즈 및 가격 (태장계, 금강계 만다라 가격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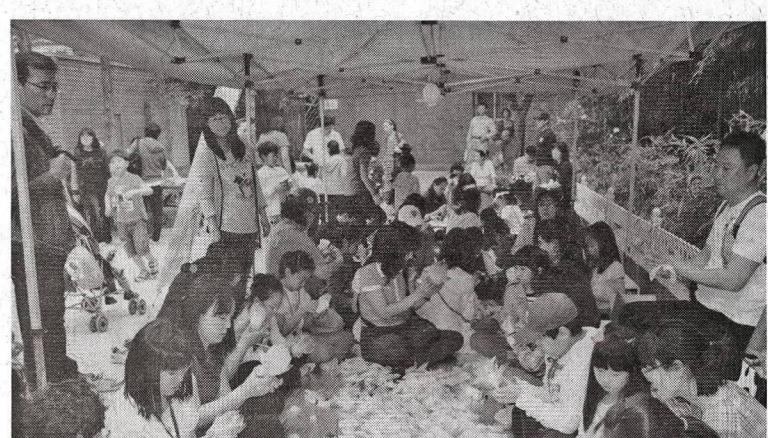
- ▶ 1000 x 1000 1개 650,000원 (액자포함)
- ▶ 750 x 750 1개 500,000원 (액자포함)
- ▶ 500 x 500 1개 300,000원 (액자포함)
- ▶ 250 x 250 1개 200,000원 (액자포함)

\* 문 의 : 통리원 T. 02-552-1080~3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80-047811 예) 불교총지총

# 대불련, 포교한마당 개최

## 컵등만들기, 페인트페인팅 등 행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경호)가 5월 5일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포교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희단 유통 공연, 컵등만들기, 양초만들기, 사불, 페인트 페인팅 등의 행사를 펼쳤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펼쳐

진 어린이날 포교한마당 행사에는 시민들이 빌디밀틀이 없을 정도로 참가하는 인기를 누렸다. 행사에 참가한 김수아 어린이(화정초 4년)는 “어린이 날을 맞아 인사동에서 연등만들기와 초를 만들어 보니 재미있다. 언니 오빠들이 유통도 잘하는 것 같

다.”며 “내년에도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전법회관 지하 1층에서 연희단 유통연습을 했다. 연희단 유통에 대해 신보라 간사는 “시민 참가자들과 같이 덩실덩실 춤추고 어깨를 들썩이는 흥겨운 축제, 바로 우리가 목표하는 축제”라며 “음악과 춤으로 분위기를 선도하는 대불련 연희단은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불련 박경호 회장은 “부처님오신날이 불자들의 축제를 넘어 서울시민, 전 세계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연등축제에서 대학생들의 열정을 알리고 싶다”며 “대학축제기간인 5월에 치러지는 연등축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홍보하여 문화적 캐퍼스 포교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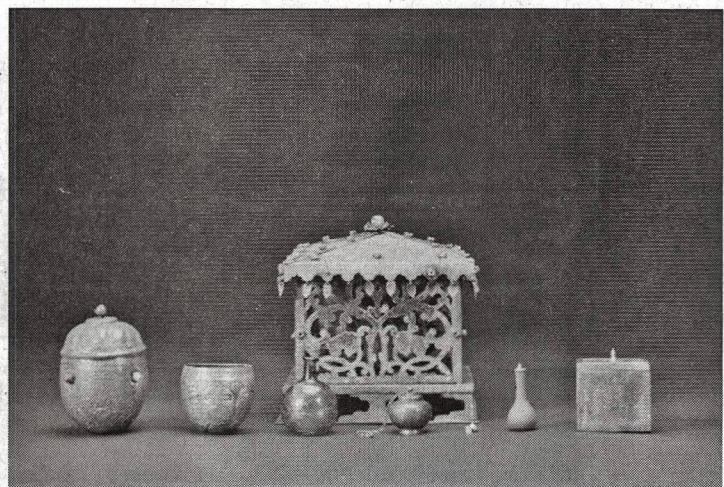
## 불교진흥원 제8회 대원상 후보 공모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 이하 진흥원)이 제8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대원상(大圓賞)은 진흥원 설립자인 故 대원 경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포교대상(부문 I)은 현대적 방법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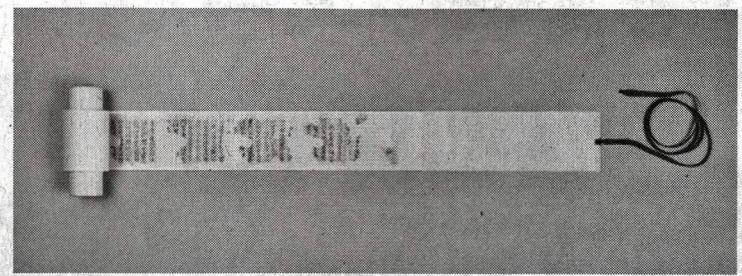
포교활동을 전개해 업적이 많은 스님 및 승가단체와 불교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및 재가단체를 대상으로 상과 상금이 1000만원씩 전달된다. 콘텐츠대상(부문 II)은 △스토리텔링과 디큐멘터리, 드라마, 다큐

#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 특별전

불교중앙박물관서 6월 13일까지



▲ 사리장엄구 일괄



▲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시 보존처리 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 이분희 팀장은 “이번 전시는 모든 불자 및 대중들에게 석가탑 사리장엄구의 조계종단 반환을 축하하고, 법사리인 경전을 포함한 석가탑사리장엄구의 친견을 통해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시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불경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지난 2009년 12월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조계종단으로 이관된 이후 첫 전시이다. 더불어 석가탑 사리장엄구 일체 40건은

‘법사리 신앙’, ‘중수문서’ 등 세 부문으로 구성했다. 우선 ‘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를 첫 공간에 전시한다. 이 전시실은 탑 안에 사리를 모시기 위해 조성된 사리장엄구에 대한 이해의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분희 팀장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멸 후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탑은 사리를 봉안하고 장엄하는 기구로 불법의 상징”이며 “통일신라시대의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는 이러한 사리신앙의 바탕 하에 조성된 것으로, 석가탑 사리장엄구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꾸몄다”고 설명했다.

2010년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국보126호) 특별전은 ‘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와

님오신날을 맞아 ‘2010년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국보126호) 특별전’을 5월 13일 오후 3시에 오픈한다.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한달간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전시된다.

이번에 전시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불경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지난 2009년 12월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조계종단으로 이관된 이후 첫 전시이다. 더불어 석

가탑 사리장엄구 일체 40건은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스님)과 불국사(주지 성타 스님)는 불기2554(2010)년 부처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운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  
가 공동 집필 ...**

## 밀교사상사개론

국판 / 청가 15,000원 / 불교중앙박물관부

**육자대명왕진선<옴마니반메훔>의 유래와 공덕을 철학  
경전으로 본 것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불설대승장엄보왕경

변경국판 / 청가 7,000원 / 불교중앙박물관부

**천대경보화 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에 대하여 서술하  
였으며, 불교의 특징과 구분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불  
교에 대한 개략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불교, 교양으로 읽다

국판 / 청가 15,000원 / 민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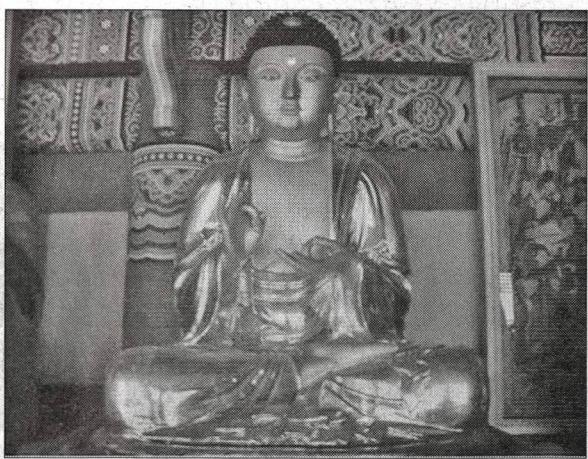
**한국불교의식의 대명사인 천수경에서 왜 처음과 끝이  
진언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비법을 밝히고 있으며  
본심요점은 통해 누구든 엎볼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  
하고 있다.**

##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국판 / 청가 8,000원 / 운주사

#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지정

복장전적 등 불교사 연구 귀중한 자료



▲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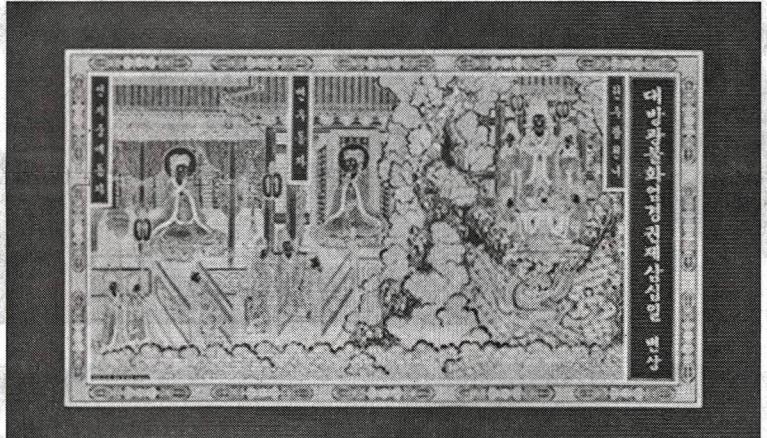
▲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  
좌상 복장전적이다. 이전 적은 모두 21점으로,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9~13세기에 걸쳐 사성(寫成) 또는 간행된 〈화엄경〉이다. 〈화엄경〉은 진본(晉本) 60권, 주본(周本) 80권, 정원본(貞元本) 40권 3본이 고루 들어 있다. 전적들 중 9~10세기 초에 만들어진 고사경(古寫經)들은 신라사경의 형식과 동일한 26행 17자분의 행자수를 이루고 있으며, 고관경(古板經)의 형식의 전적의 경우도 24행 17자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이번 지정된 4건의 문화재 중 주목할 만한 보물은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보물 제1650호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51호 공주 갑사 석가여래삼세불도△보물 제1652호 통영측우대(統營側雨臺)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자비도량 침법집해(慈悲道場鐵法集解)’ 등 4건의 문화재들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자비도량 침법집해’는 활자본을 번각한 목판의 일본(印本)이다.

## 사경연구회, 전통 사경 전시회

5월 15~20일 예술의 전당서



▲ 금니사경변상도

부처님 오신날과 내년 초조대 장경 사성(寫成) 1천 주년을 앞두고 한국사경연구회(회장 김경호)가 회원 101명이 완성한 사경 300여 점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회를 5월 15~20일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사경연구회 제5회 회원전인 이번 전시는 ‘삼청(三清), 삼무(三無) 수행의 예술적 승화, 사경 - 그 영롱한 법사리전’을 주제로 전통 사경 작품과 현대 사경 창

작품을 두루 선보인다. 전통 사경 작품은 권자본, 절첩본, 선장본과 같은 전통적인 장정 양식을 채용하고 목서, 금니(금가루), 은니(은가루), 경면 주사 등의 전통 재료를 사용했다. 이번에 사경 작품에는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가톨릭과 개신교 경전인 성경과 유교 경전인 사서(聖書), 그리고 도교 경전인 도덕경 등도 들어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끈다.

이외에도 변상도도 소개돼 흥미를 자아낸다. 사경(寫經)이란 원래 불교경전을 한자 한자 또 박또박 베껴 쓰는 작업을 말한다. 하지만 단순히 베껴 쓰는 작업이 아닌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며 일념으로 정진하는 일종의 수행이다. 지금처럼 복사기가 없었던 옛날에는 책 내용을 후대에 전수하거나 포교활동을 위해서 사경작업이 필요했다.

하지만 불경 자체가 난해한 내용이어서 경전을 그대로 필사하는 방식만으로는 포교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고안된 게 삽화였다. 사경에 삽화를 삽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높이자는 취지였다. ‘사경변상도(寫經變相圖)’는 이 같은 배경으로 탄생했다. 사경변상도는 송불정책을 펴던 고려시대에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왕조 내내 억불정책 기조를 유지한 조선시대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장됐다.

변상도 30여점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또 한편으로 보면 역사의 뒤안길을 따라 걸으며 잊어버린 지난 600년의 시간을 되찾는 자리이기도 하다.

## 제3회 불교아동미술큰잔치 열려

“맑고 향기로운 우리들 세상”



▲ 5월 4일 조계사서 열린 제3회 불교아동미술큰잔치

제3회 불교아동미술큰잔치가 5월 4일 조계사 일대에서 펼쳐졌다. 어린이날 맞아 조계종사회 복지재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맑고 향기로운 우리들 세상’이라는 주제로 불교계 영유 아보육시설 원생 550여 명이 참여했다. 또 부대행사로 단주 만들기 및 컵등 만들기, 페이스페

인팅, 소원지 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어린이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불교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전통 사찰에서 야외 문화 활동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불교문화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맑음상을 수상한 연꽃어린이집 박수연 어린이는 “오늘 그림에는 부처님 연꽃 스님을 그렸어요. 이렇게 상을 받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소원지에는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가고 싶다고 적었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맑음상을 수상한 대청어린이집 장우진 어린이는 “그림을 내고 나서 대상을 받지 않을까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하지만 오늘 받은 상으로 만족해요. 페이스페인팅도 하고 단주도 만들면서 너무 신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대상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라며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이날 단체상은 해나라어린이집, 신일어린이집에게 돌아았고 대상은 정릉1동어린이집 이민정 어린이가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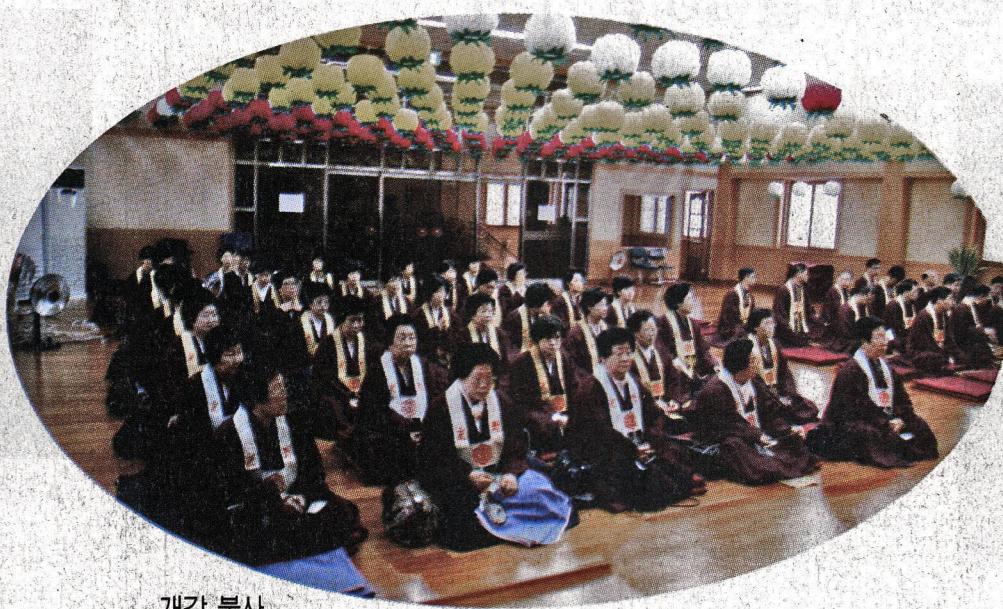
## 제75회 춘계강공(역삼동 통리원)

강공회는 매년 봄기울 두차례 전국의 스승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종단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숙의하고 일선사원에서의 교회방편을 공유하는 종단의 중요한 행사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열린 제75회 춘계강공회 이모저 모를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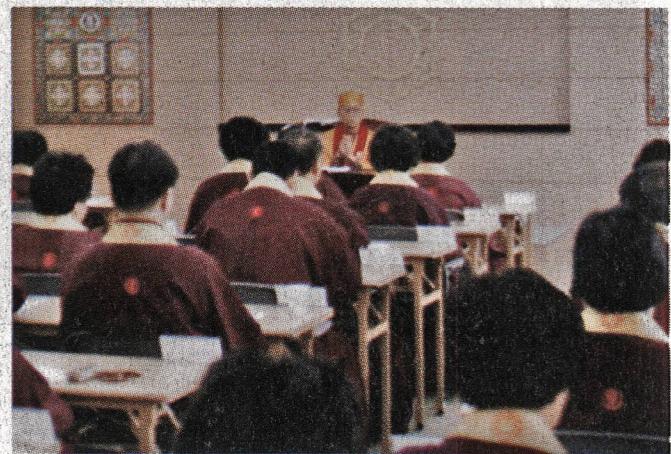
# “제생의세의 사명 위해 정진합시다”



개강 前 종조전 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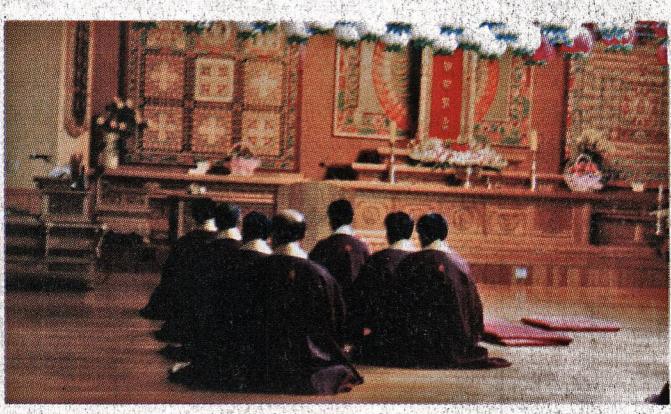
개강 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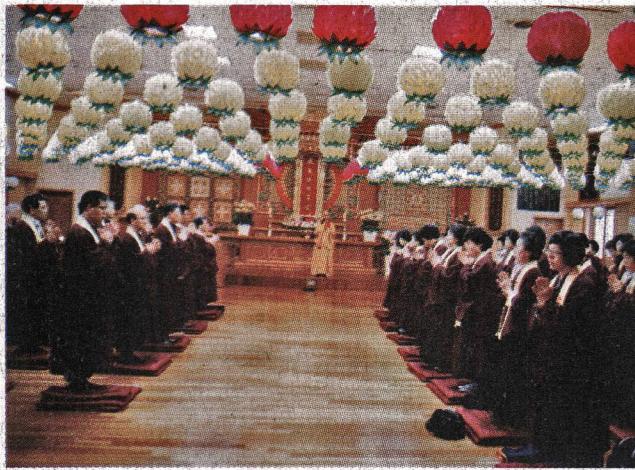
종령 예하, 정신교육



반야실 승단 총회



개인 정송



회향 상호 인사



원의회 및 재단이사회 회의



공식 불공



## 총지종 보리자 108염주

천은사 보리자(7mm)를 사용하여 보리자 108염주를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보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천은사 보리자이고, 모주는 패다라에 육합상을 조각했으며, 간주로는 천연 백수정 10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패다라란 인도에서 종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인 나뭇잎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나뭇잎에 새겨두었으므로 바로 경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열매로 모주를 만들었기에 부처님 말씀을 들 수지한 경전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패다라 모주 108염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패다라(貝多羅) : 經은 梵語로 수다라(sutra)라고 하는데 바로 번역하면 선. 관(線. 貫)이 된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패다라 나무 잎에 써서 끈으로 엮었기 때문이다….



• 해외불교 탐방

독일불교 순례기(립텐재단②)

## 보정

(법장원 연구원/ 박사)

유럽의 립텐 재단은 현재 유럽 각지에 8개의 불교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명문 불교 재단이다. 우리 일행은 8개 센터 가운데 재단 본부가 있는 스위스의 센터를 포함해서 4개의 센터를 방문했다.

독일의 고속전철(ICE)은 넓고 페적했다. 좌석간 거리와 폭이 우리나라의 케이티엑스(KTX)에 비할 바가 아니다. 케이티엑스 특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았다. 하긴 케이티엑스 일반실처럼 좁다면 유럽인들 중에서도 덩치가 큰 독일인들에게 너무나 불편할 것이다. 차창으로 그림 같은 풍광이 펼쳐졌다. 평원과 낮은 구릉, 그리고 조지가 철길을 따라 펼쳐지고 드문드문 아름답게 단장된 집들이 무척 평화로워 보였다. 경부선 철로의 풍광과는 너무도 달랐다. 어디에도 어지럽게 늘어선 전봇대와 전깃줄, 마



▲ 님펜부르그 궁전 앞의 필자.

구집으로 파헤쳐진 절개면, 어지럽게 들어선 아파트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선진국이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칠게 발전해 왔는지를 반성하게 만들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사람들은 이런 곳을 와 보기 못했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게 했다.

한편으로 풍광에 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구 끊겨진 우리 강산에 대한 상념에 빠지면서 뮌헨 역에 도착했다. 대략 3시간 가량의 여정이었다. 공업도시인 프랑크루르트의 역과 달

리 행정과 문화의 도시인 뮌헨 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플랫폼에 내려서 출구 쪽으로 향하니 독일 전통 복장을 한 그린트 교수가 얼굴에 미소를 띠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역에서 택시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뮌헨 립텐 센터에 도착했다. 나무와 꽃들이 잘 어우러진 정원을 가진 센터에서 회원들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인사를 하고 티벳식으로 꾸며진 법당에서 함께 법회를 했다. 법당은 1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성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자신들의 지도자인 립포체 사진을 불단에 크게 모셔 놓은 것이 이색적이었다. 기념품으로 '옴마니반메훔' 족자를 가져갔었는데 법회를 마치고 이를 전달하고 다시 정원으로 나왔다.

아외 테이블 위에 빵과 치즈, 포도주, 과일 등으로 아름다운 식사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옆집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서 배웠다며 만들어 준 김치도 있었다. 우리도 가져간 감귤 초콜렛을 내어 놓았다. 모두들 초콜렛 맛보다도 한복을 입은 여인의 사진이 새겨진 초콜렛 상자와 알록달록한 포장지에 감탄사를 쏟아 놓았다. 음식과 서로가 만나게 된 인연들, 그리고 날씨를 화제로 삼아 이야기하면서 회원들과 풍성한 점심을 먹었다.

8월의 뮌헨은 맑은 날이 드문데, 우리가 오자마자 날씨가 화창하다며 덕담을 했다. 회원들은 모두들 오랜 인연들이었으며, 심지어는 그린트 여사의 중학교 동창생도 있었다. 모두들 은화하고 지적인

사람들이었으며, 그들 중 올프강 내외는 명문 집안 출신이라 할 만한 사람들이었다. 올프강 씨는 그의 증조부가 뮌헨의 주요 공공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였으며, 올프강 여사의 아버지는 1960년대에 세계 최초로 자동 카메라를 설계했다고 한다.

점심 후에는 다른 회원들과 헤어진 다음 우리는 두 시간 가량 휴식을 취했다. 오후 4시 경에 베르사이유 궁전을 모방했다는 님펜부르그 궁전으로 관람을 갔다. 바바리아 지방 왕의 여름 궁전인 이곳은 립텐 센터에서

도보로 25분 거리에 있었다. 숲이 우거진 길을 따라 짧은 엄마와 아이들이 쉬고 있는 공원을 지나고, 그린트 교수가 조깅을 즐기는 배울이용 인공 운하를 따라 님펜부르그 궁전에 이르렀다. 궁전은 내부 관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바로 궁전 뒤의 정원을 둘러보았다. 화려한 꽃들로 장식된 큰 정원이었다. 정원 뒤로는 사방 터이기도 한 큰 숲이 있었는데 우리는 정원만 구경하고 정원에 떨린 까페에 들어 커피를 마셨는데, 물 1병이 6천 500루프, 우리 돈으로 만원 정도 하였다. 이때부터 알게 된 일이지만 독일의 물가는 매우 비쌌다. 그린트 교수 내외가 특별히 좋은 식당에 우리를 데리고 간 탓도 있지만 비싼 음식 값 때문에 매번 대접받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웠다. 가급적이면 기본 메뉴 외에는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평균 한끼 당 2만 5천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저녁에는 뮌헨 올림픽 공원 전망탑 회전 식당에서 왕릉 박사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타워를 360도 회전하는 식당은 뮌헨의 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왕릉 박사는 티벳에서 망명한 학자이자 립포체로서 1960년대부터 독일 연방정부와 바바리아 주정부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티벳문화 사전 편찬 일을 하고 있었다. 립포체는 티벳 불교 전통에서 활성화된 고승을 가리킨다. 대부분 립포체는 출가승이지만 재가 립포체도 있는데 왕릉 박사는 그런 전통에 속한 사람이었다. 왕릉 박사는 우리가 주최하는 재가불교지도자대회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저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는 그린트 박사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다. 그는 생활한 학자로서의 삶이 그대로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티벳 불교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있었으며, 신리의 고승인 원측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다.

뮌헨에서의 우리 숙소는 센터 2층의 게스트 룸이었다. 센터는 원래 3층으로 된 가정집을 조금 개조한 것이었는데, 지하실은 그린트 박사 내외의 공장겸 사무실, 1층은 센터 법당, 2층은 게스트 룸, 비교적 좁은 3층은 명상실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센터는 고급 주택기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주위에 오래된 나무들이 많고 조



▲ 뮌헨 립텐센터.

용했다. 그린트 박사 부부의 성품을 보여주듯 센터 내부는 아주 정갈하였다. 우리는 게스트 룸에서의 숙면으로 장거리 여행의 피로를 쉽게 풀 수 있었다.

뮌헨에서의 둘째날 아침은 게스트 룸 밸코니에서 그린트 박사 내외, 그리고 그린트 여사의 조카와 함께 했다. 여대생인 조카는 밝고 명랑한 귀여운 아가씨였다. 아르바이트로 그린트 박사 내외의 사무실 일을 돋고 있었다. 그린트 여사와 조카가 함께 빵, 우유, 치즈, 과일, 차 등을 밸코니 테이블에 차렸다. 특별히 유명한 빵집에서 아침에 갖 구운 것을 사온 빵은 참으로 고소했다. 센터 주위의 집들은 모두 정원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데다가 집과 집 사이에는 담이 없고 화단으로 경계를 하고 있어서 밸코니는 마치 숲이 우거진 공원에 있는 애완 식당 같았다.

9시 반에 1층 법당에 참배를 한 후 전철로 뮌헨 구시가지로 이동했다. 전철 역시 고속철과 마찬가지로 넓고 페적했으며, 개찰구가 없는 역이 인상적이었다. 그만큼 시민의식이 성숙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뮌헨은 근대 독일을 상징하는 도시라 할 수 있었는데, 주로 근대기에 독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세운 공공건물들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위용의 완성은 히틀러가 해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2차대전 당시 대부분이 파괴되었던 것을 하나씩 꾸준히 복원하여 거대한 석조건물들이 늘어선 옛 행정 중심가가 거리는 고풍스런 위용을 갖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거대한 규모의 레

지덴츠 궁전과 지하실에 바바리아 왕국 왕족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성당을 구경하고 시청 앞 광장에서 독일 전통 소세지로 점심을 했다. 식사와 함께 우리는 알콜 성분이 없는 맥주를 한잔 씩 했다. 바바리아 지방은 특히 맥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였다. 점심 후에는 전통 시장을 구경했는데, 다시 한 번 놀랐다. 전통 시장이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할 수가 없었다. 우리의 전통시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름다운 건물들과

초록색 줄무늬

로 통일된 차

양, 그리고

싱싱한 야

채와 과

일 등이

깔끔하게

정렬된

시장은 마

치 동화의

세계 같은 모

습을 하고 있었다.

시장은 상당히 붐볐

지만 어디에도 소란

함은 없었다. 백화점에 밀려 쇠락해

가는 한국의 전통시장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뮌헨에는 고층빌딩이 없다. 대부분 5층 이하의 건물이었다. 법으로 고층빌딩 건설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뮌헨의 고층 건물은 단 2개 뿐이다. 비엘 더블유 본사와 뮌헨 비즈니스 센터가 그것이다. 30층 쯤 되어 보이는 이 빌딩만이 뾰족 솟아서 시내

어디에서도 볼 수 있을 때를이었다. 시민들 스스로가 고층빌딩이 뮌헨에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은 결과였다. 수십층 아파트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네 의식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여행은 자기 밖의 세계를 보는 것 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된다. 빠른 경제성장 덕분에 한국은 현대화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현대를 상징하는 높은 빌딩, 승용차, 도로, 통신망, 각종 소비재는 어디에도 뒤질 것이 없다. 한국이 가장 뒤지는 것은 전통의 보존이다. 우리는 전통을 파괴하면서 현대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직 산업화가 덜 진행된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서구 사회에 비해서도 더 전통의 흔적을 찾기 힘들어졌다. 전통이 파괴되거나 버려진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과거 우리는 독일이 벤츠나 비엘 더블유 같은 명차로 상징되는 기술산업을 부려워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보존하고 있는 전통을 부려워하게 될 것 같다.

전통 시장에서 열대 과일을 사 먹어 본 다음 뮌헨 사람들

이 휴식을 즐기는

공원엔

공원은 수백

만평나

되는 거

대한

금

인데

금에는

꽃

25미터

가량의 강이 흐르고 있었으며,

거기서 젊은이들이

파도타기를 하고 있

었다. 종일 걸은 다리도 쉬게 할 겸 그늘에 앉아 그들의 묘기를 한참 구경했다. 참으로 부러운 도시가 아닐 수 없었다. 피로가 풀리자 미술관에 들어 관람을 한 다음 시내 중심가에서 외국관광객이 꼭 방문한다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귀가하였다. 다음 날은 일찍 출발하여 센터의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로 가야 하기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에 계속)

##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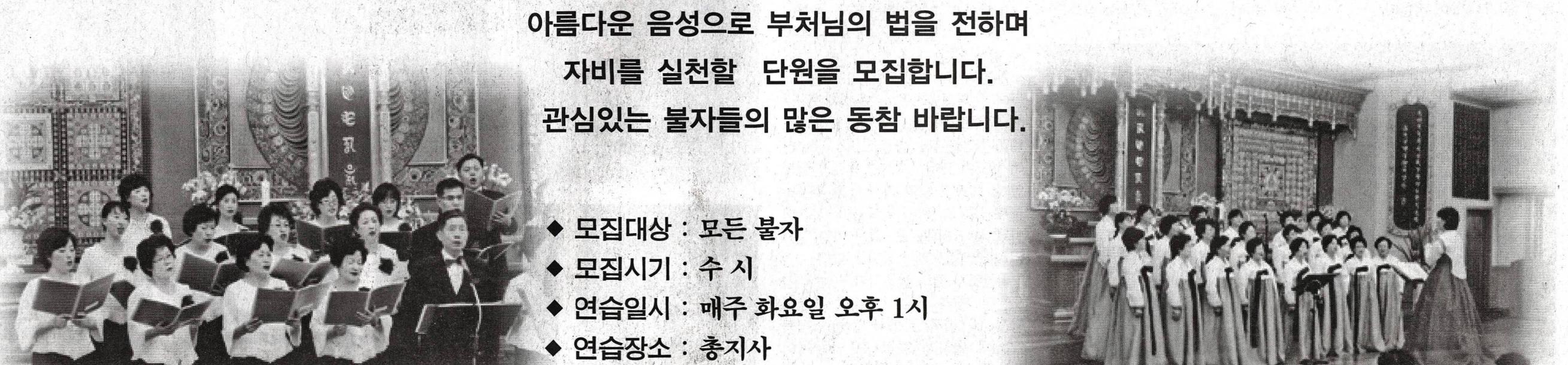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 모집시기 : 수시
- ◆ 연습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 연습장소 : 총지사
- ◆ 연락처 : 이연수 단장

02)552-1080~3(대)



사찰순례

# 불국토 신라의 저력 보여준 동양최대 가람 황룡사지

## “밀교의례 통한 불력(佛力)으로 국가 수호”

신라 왕실에서는 밀교의례에 의해 불력(佛力)으로 국가를 수호하려는 염원으로 호국사찰을 창건하였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 황룡사(皇龍寺)(553년 시작 569년 완성)가 대표적인 예이다. 황룡사는 경주시 구황동(九黃洞)에 자리잡고 있다. '구황'이란 지명은 신라 진흥왕이 궁궐을 지으려 할 때 아홉 마리 황룡이 나타나 승천해서 궁궐 대신 절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라 최초의 절은 이차돈이 순교하던 해인 법흥왕 14년(572년)에 짓기 시작하여 진흥왕 5년(544)에 완성된 흥륜사이다.

불교가 새로운 국가이념이며 정신적 지주임을 흥륜사를 통해 선언한 것이라면 황룡사는 불교가 뿌리를 내리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여 더 나아가 삼국통일을 향한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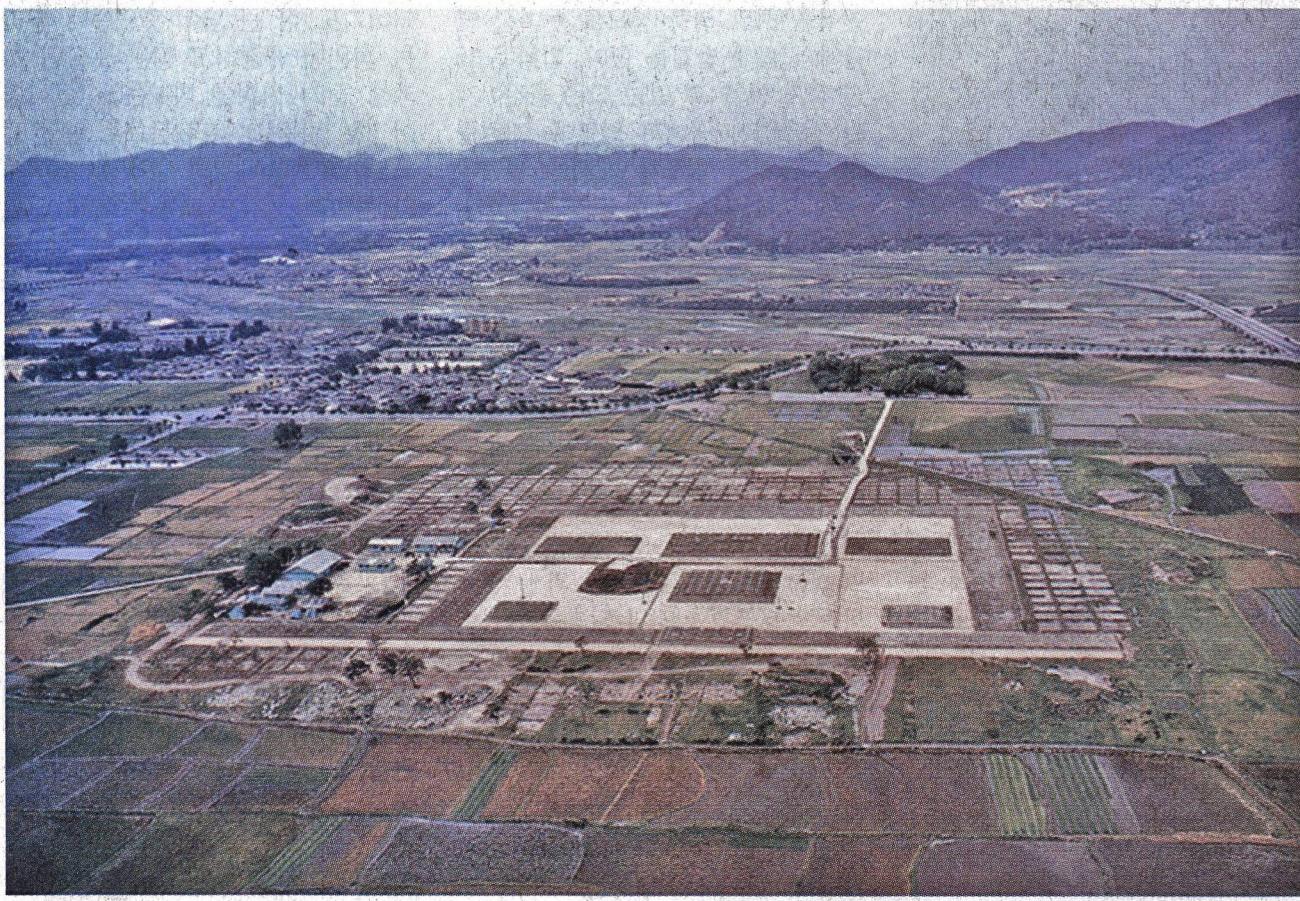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는 연이은 대형 불사에 진흥왕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용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는 설도 있다. 황룡사를 비롯, 분황사, 황복사 등 '황' 자가 든 아홉 개의 절이 있었다고 해서 유래된 지명이라고도 전한다.

유로 외적의 침입을 막기위한 기원을 담은 9층 목탑을 짓게 되는데, 탑신부 약 65m, 상륜부 15m, 전체 높이 80m로 추정된다.

각 층마다 적국을 상징하도록 하였으며, 백제의 장인 아비지에 의해 645년에 완공되었다.

이와 같이 553년에 처음으로 짓기 시작한 황룡사는 645년 목탑이 완성될 때까지 4대왕 93년간에 걸쳐 국가적으로 조성된 대사찰이었으며, 역대 임금이 이 절에 와서 고승의 설법과 강의를 받은 신라 최고의 국사사찰로 유지되어 왔다.

신라의 3가지 보물 중 천사옥대(天賜玉帶)를 제외한 2가지 보물이 황룡사 9층 목탑과 장육존상이었다는 점에서도 황룡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신라의 땅이 곧 부처가 사는 땅'이라는 신라인들의 불교관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기도 하다.



▲ 황룡사지 전경

### ● 황룡사지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황룡사는 분활시에서 안암지, 반월성 사이에 있는 큰 절터로 사적 제6호이다. 자평면적 381,048㎡. 황룡사는 진흥왕이 7세에 왕위에 올라 나이 21세 되던 553년(진흥왕 14)에 월성(月城) 동쪽에 새로운 궁궐을 짓게 하였으

553년에 짓기 시작하여 569년에 주위에 돌담장을 두르고 경역(境域)을 마련하여 일단 사찰의 건물배치가 완료되었다.

그 후 574년, 인도의 아소카왕이 철 57,000근·금 3만분으로 석가삼존불상을 만들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금과 철, 그리고 삼존불상의 모형을 배에 실어 보낸 것이 신라 땅에 달게 되자, 이것을 재료로 삼존불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5m가 넘는 이

#### ▶ 인도 아소카 왕이 보낸 철로 장육존상 조성

고려조에 있어서도 이 절은 송양과 보호를 받아왔다. 현종 때인 1012년에는 경주에 남아 있던 조유궁(朝遊宮)을 헐어 그 재목으로 구층탑을 수리하기도 하였고, 그 뒤 1105년에는 예종이 상서(尚書) 김한충(金漢忠)을 보내어 수리한 황룡사의 낙성식에

고, 탑의 전방으로 좌우에 대칭되게 건물을 세워 종루(鐘樓)·경루(經樓)를 마련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특이하게도 금당의 좌우에 거의 같은 규모의 건물을 나란히 세웠음이 밝혀졌는데, 이 건물 역시 금당과 같은 성격으로 보인다. 또한, 강당의 좌우에도 독립된 건물을 배치했고, 동서남북으로 마련된 회랑(回廊)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황룡사의 가람배치가 이처럼 전혀 새로운 형태였음이 밝혀져, 지금까지 막연히 추정해왔던 것을 바로잡게 되었다. 일본인 학자에 의하여 1930년에 조사 발표되었던 내용은 회랑의 형태가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은 장방형으로 모두 서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 그 내부에 탑과 금당이 남북으로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방형에 가까운 회랑 내부에 삼금당과 종루와 경루가 있어 이것이 신라의 독특한 가람 형태임을 알게 되었다.

다. 즉 남문 3칸, 종문5칸, 목탑 7칸, 금당 9칸, 강당 11칸으로 절 안으로 갈수록 칸 수를 늘려 부처님의 넓은 세계로 확대되는 느낌이 들도록 배치하였다.

황룡사 인접 지역에는 신라시대 옛 시가지 흔적이 남아있다. 서쪽, 남쪽으로 곧게 뻗은 신라시대 옛길과 배수구 등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이 다니던 인도와 수레가 다니던 차도가 구분되어 있다. 황룡사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변화가 형성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밖에도 발굴조사 결과 이 절이 그 규모에서 동양최대의 사찰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특히 구층탑은 무려 80m나 되는 높이를 가진 대탑으로 동양 최고의 목조건물이 존재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게 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무려 4만여점에 달하며, 이 중 각 시대에 걸쳐 만들어져 사용된 와전류(瓦轉類) 기문데 특히 측면에 용(龍)을 새긴 보상화문전(寶相花文轉)은 지금까지 출토된 예가 없는 통일신라시대의 우수한 작품이다.

#### ▶ 동양최대 '치미', 규모 짐작

황룡사는 평지에 위치한 관계로 아득한 느낌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람 배치에 신경 쓴 흔적이 보인다.

옛날 황룡사 규모를 추정할 수 있

는 것 중 하나가 '망새'라고도 불리는 건물의 치미이다. 치미는 전통 건축물의 융마루 양쪽 끝머리에 있는 상징적인 장식 기와인데 화재를 예방하는 주술적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다.

황룡사에서 출토된 치미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치미 중 가장 큰 것으로 높이가 182cm, 최대 너비 105cm로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아직 발견된 예가 없어 동양최대라 할 만하다. 아울러 치미의 크기로 건물의 웅장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금속류로서는 금동제불상·풍탁(風鐸)·금동제귀걸이·청동거울 등이 수습되었으며, 이 중 금동불상 1점은 여래입상(如來立像)으로서 높이 10cm에 지나지 않으나 조각 솜씨가 우수하여 도금이 매우 찬란하고 화려하다.

금당에는 솔거가 그린 벽화가 있었고 전하며, 목탑지에서 발견된 당나라 백지향이라는 당시의 문물교류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종루에는 거대한 종이 있었는데, 봉고가 침입했을 때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계속)



▲ 황룡사 추정 복원도

나 그곳에서 황룡(黃龍)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 사찰로 고쳐 짓게 하여 절 이름을 황룡사라 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전한다.

불상을 모시기 위해 진평왕 6년(584)에 금당을 짓게 되었다. 선덕여왕 12년(643)에는 당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온 자장 스님의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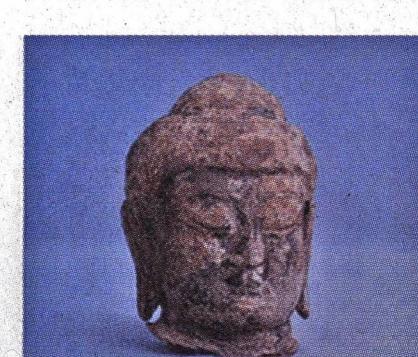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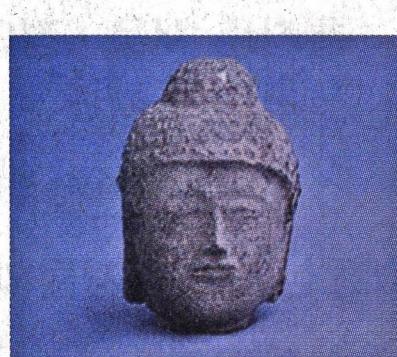
참석하도록 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황룡사는 1238년(고종 25) 몽고병의 침입 때 모두 불타 버리고, 오늘날까지 다시 복원되지 못하고 민가와 경작지로 변하여 겨우 흔적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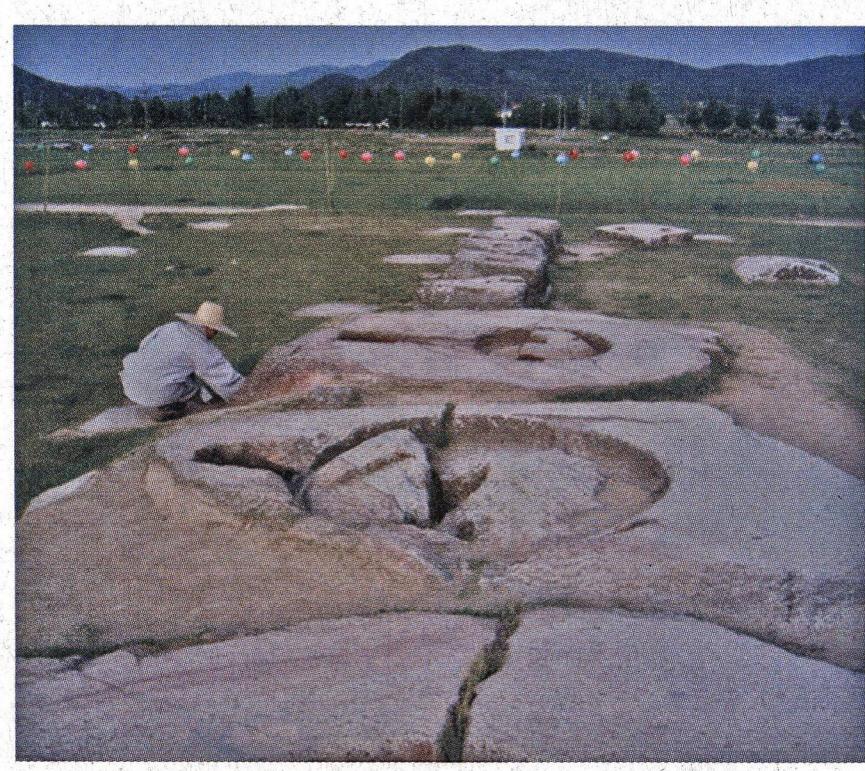
황룡사의 발굴조사는 1970년대 들어서 본격화되었다. 문화재연구소에 경주고적발굴조사단이 결성되고, 1976년 6월부터 발굴조사에 착수하여 1983년 12월까지 8년 동안 진행되었다. 백제 지역의 익산 미륵사지 발굴조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고고학 발굴 사상 최대규모, 최장 기간 진행된 발굴작업으로 기록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황룡사지 터는 이만 오천여 평에 이르며 원래의 황룡사 담장 내 면적이 동서 288m, 남북 281m에 달하며, 불국사의 8배에 이르는 동양 최대의 절이었다. 당초 높지를 매립하여 대지를 마련하였음이 발굴조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사찰의 건물배치는 중문(中門)·탑(塔)·금당(金堂)·강당(講堂)이 남북으로 배치된, 이른바 1탑식가람배치(一塔式伽藍配置)를 기본으로 하



▲ 출토 유물들



▲ 장육존불 좌대석